2022
No.114

虎商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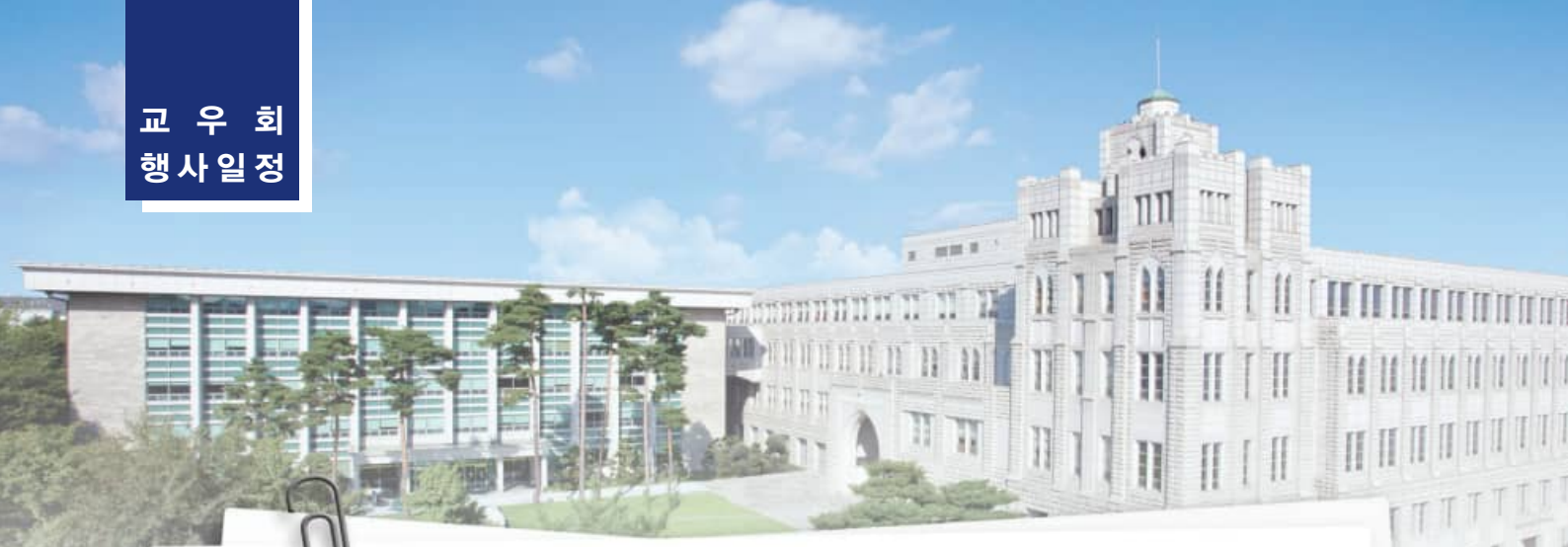
비상대책위원회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03_ 신년사
05_ 2021 비대면 임시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06_ 2022 상반기 비대면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08_ 인터뷰
12_ 학위수여식
15_ 학번별 소식
22_ 교우동정
26_ 교우기부
28_ 교우신간
30_ 북리뷰
31_ 교우기고_수필
35_ 교우기고_여행기
42_ 교우기고_칼럼
49_ 경영대 교수명단
53_ 경영대 소식
56_ 모교 소식
59_ 회비납부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2 통권 제114호 Vol.36

발 행 일 2022년 3월 28일
발 행 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 행 인 경영대학 교우회장
편 집 인 신학기
인 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 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 화 02-922-3762
팩 스 02-922-3763
이 메 일 kubsa@kubsa.or.kr
홈페이지 www.kubsa.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 격 3,000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2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사명	장 소
2월 25일(금)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온/오프라인 방식
3월 24일(목)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 서면회의
4월 23일(토) 09:00	제10회 걷기행사	미 정
5월 9일(월)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미 정
5월 말	제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L-P경영관
7월 초 18:00	야구부 후원금 전달	총교우회 주관 장소
9월 21일(목) 12시경	골프대회(전 교우)	미 정
10월 1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참살이길
10월 6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미 정
10월 20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미 정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L-P경영관
12월 1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층)

존경하는 경영대 교우 여러분께

희망찬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2만여 경영대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12월 15일 고려대 경영대 교우회가 비대면 서면회의로 실시한
'2021년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자 결정' 안건 심의 결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홍익대 경영대 교수인 경영 80학번 조성호 인사드립니다.

1981년 11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후원회로 태동한 우리 교우회는 2022년 1월 현재
그 위상과 규모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대한민국 경영, 경제, 행정,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고,
교우 간에 화목과 신뢰와 존경으로 똘똘 뭉친 경영대 교우회는 우리의 자랑이자 또한
대한민국의 모범입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후배 재학생들은
이러한 교우회를 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뒤를 이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합니다.

경영대 교우회를 현재의 이런 위상과 반석에 올려놓으신 선대 회장님들의 혁신노력을 이어받아
8대 정몽원 회장께서는 "미래로 가는 교우회"라는 슬로건으로 90년대 학번과
여성 교우회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9대 이덕한 회장께서는 교우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우 간의 소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나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해 말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대 교우회 상임이사회가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교우회장의 선임을 위해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명예교수 등 원로 선배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덕망 있는 교우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임회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지속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도 교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회 장 직무대행 **조성호** 배상

2022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 여러분,

2022년에는 한반도의 산야를 거칠게 누비던 멋지고 강한 호랑이처럼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비대면 임시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1 개최일 : 2021년 12월 15일(수)

2 안건 심의

가. 회장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자 결정

- 사유
  - 현직 제 9대 교우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의사를 표명함
  - 신임회장 선출 전까지 교우회의 일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우회 회칙 제17조에 의거 회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함

나. 관련 근거 : 경영대학 교우회 회칙

- 제17조(임원의 직무)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 시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3 안건 심의 결과

가. 원안대로 가결

- 서면결의서 : 회신 84명 중 찬성 83명(98.8%), 반대 1명(1.2%)

나. 관련 근거

- 회칙 제20조 ①항(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 제22조 ③항(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갈음한다)

【회장 직무대행자 소개】

- 성 명 : 조성호(경영80)
  - 교수,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전략전공)

2022년 상반기
비대면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1 개최일 : 2022년 3월 24일(목)

2 안건 보고 :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가. 2021년도 사업 추진 현황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상 · 하반기 상임이사회는 비대면 서면회의로 실시
- 대규모 대면 행사 불가능으로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 미실시
- 12월 15일 비대면 임시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조성호 교우(경영80)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결정

나. 손익 현황

-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교우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회비 납부 실적 저조
  – 총수입 : 2020년 대비 약 4천9백만 원 감소
- 직원 1명 감축 및 호상지 발행부수 축소 등 비용관리 강화
  – 총지출 : 2020년 대비 약 8천1백만 원 절감

▶ 당기순이익 : 2021년 말 기준 약 4천2백만 원

다. 재무 현황

- 예금 잔액 약 5억9천1백만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천5백만 원 증가

3 안건 심의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가. 기본 운영방안

- 수입 부문은 교우의 밤 행사 실시 및 신임 회장 선출에 따른 운영 정상화 감안 증액 편성
  - 총수입 : 2022년 약 3억3천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1천2백만 원 증가
- 코로나 사태 점진적 정상화 감안 가능한 한 각종 행사 실시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예상되나 최대한 예산 감축 운용
  - 총지출 : 2022년 약 3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3천만 원 증가

  ▶ 당기순이익 : 2022년 말 기준 약 2천4백만 원 예상
- 회비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비수입 금액 증대
  -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토록 개편
- 교우회 각종 조직의 소모임 활성화 적극 지원
  - 809, 909, KUBS Ladies 모임 주선 및 지원 강화
- 교우의 밤 행사 시 주최 학번의 모금액 중 20%를 교우의 밤 행사비 적자 보전조로 찬조 협조 요청
  - 주최 학번의 모금액 중 일부 찬조는 2018년도부터 시행 중

나. 행사 계획(안)

- 과거 2년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으므로 2022년에는 가능한 한 행사 실시를 원칙으로 함
- 행사 일정, 장소 및 실시 방법은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nterview

정호원 교수님
퇴임 인터뷰

"학교에서 '잠시 만나더라도 행복해지는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 교수님께서는 경영대학에서 인터넷 기술, SW 개발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심사 등 IT 관련 연구를 주로 해오셨습니다. 위 학문을 처음으로 도입하셨을 때의 반응은 어땠나요? 경영대학에 처음 부임하셨던 시절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가 1995년, 한창 인터넷 비즈니스가 떠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영학에서도 인터넷과 IT 라는 니즈(Needs)가 생겼어요. 당시에는 MIS에 관해서 전공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는데,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일찍이 MIS를 도입한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에 와서 처음 한 일이 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 경영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 내시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셨나요?

'제자가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 과제를 내줬던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과제 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방금 끝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제가 과제를 내준 바로 이튿날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 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 또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요즘도 가깝게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좋은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기쁩니다. 물론 사회 어느 곳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학교에서는 나이가 어림에도 존경할 만한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잠깐 만났지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다른 곳 어디서보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3. 오랜 교직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현대 그룹 초청으로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안에 탔는데 밖에서 "정호원 교수님 계세요!" 하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북한에서 갑자기 나를 왜 부르나 싶어서 망설이며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책임자가 찾아오더니 금방 알아보고 자기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방문한다고 하여 혹시나 하고 명단을 봤더니 제가 있어서 찾아왔다고 설명하더군요. 학부를 다닐 때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서요.
저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동시에 머릿속에서 혹시나 '과거에 내가 학점을 낮게 주진 않았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플러스 붙여줄 걸' 하는 생각이 막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고려대학이구나' 하는 벅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고려대 교수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또 감사했던 일이 사회 어느 곳을 가더라도 훈훈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고, 참 복이었지요. 제 경험을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어느 곳에 가도 그래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4.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 해오신 분야와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을 개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능력수준을 심사하는 표준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 표준과 미국 국방성이 지원하는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준에 따라 기업의 능력수준을 심사하는 심사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요. 많은 국가에서 이 두 표준의 적용이 산업(예: 국방, 자동차 등)에 따라 강제 조항입니다. 저는 이러한 심사 표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연구를 해왔고, 관련 저널에 논문 게재 결정을 하는 에디터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의 AI 표준화에서도 이러한 능력심사 표준을 도입하면서 저는 현재는 국제표준화기구 AI 표준화 한국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AI 표준화와 관련한 "산업인공지능표준화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4월 EU는 AI 법(안)을 발표하였고, 이 법의 많은 조항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하는 AI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표준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5.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경영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각 산업별로 AI 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학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경영자들이 물류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것을 넘어 로보틱스가 결합이 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점차 변하고 있지요. 이런 변화를 경영학 분야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선구자(First Mover)로서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제가 고려대학에 부임했을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소수였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인터넷 없이는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공기와 같은 존재로 이것 없이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AI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일부의 도구이지만 AI 모르고는 공부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암의 언덕을 보라”

저는 2022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는 정호원 교수입니다.

1975년에 본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하였고,
1995년에는 경영대학에 조교수로 재입학하여 25년이 지났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으로 교수로 소회는 선배 교수님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었을 때나 교수였을 때나 제 주위에 계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선배 교수님, 동료 교수님, 직원 선생님과 학생을 포함합니다.
이분들은 제 삶을 근사하고 풍요롭게 해 주셨고, 이분들의 후광으로,
저는 지금껏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 후에도
이분들에게 감사하며 지낼 수 있어 마음이 훈훈합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어이없겠습니까만,
지금의 마음은 어릴 적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섭섭함과
눈 내린 졸업식날에 설레던 기억과 같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임이라는 말보다는 졸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제 자신의 좌표가 흔들릴 때나 넘치는 행복감과 자신감이 있었을 때
제 자신에게 했던 말 “안암의 언덕을 보라.”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학년 5반 졸업생 대표 정호원 교수

2022년도 제115회 학위수여식

고려대학교는 115회 학위수여식을 2월 25일(금) 오전 10시 인촌기념관에서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정진택 총장을 비롯하여 졸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줌(ZOOM)과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였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4,296명, 대학원 2,231명 등 총 6,527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에서 정진택 총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진택 총장은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의 품에서 창의적 미래 인재로 성장하였다. '자유 · 정의 · 진리'의 고대정신과 주변 사람과 어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고대다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은 졸업과 함께 더 큰 배움의 바다로 나아간다. 더 큰 배움의 바다에서 성장하며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인재가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구자열 교우회장은 "팬데믹 위기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의연히 모든 학업을 마치고 당당히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새내기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강인한 결속력과 관대한 포용력으로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왔으며 교우들 간의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교류는 앞으로 사회인이 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고대인다운 지성과 야성으로 꿈을 이뤄나가기 바란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그러했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모교를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경영89)은 영상을 통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며 "사업초기 불의의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전쟁까지 겪었지만 결국 기업을 일으키셨던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서 '어떤 실수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우리 앞에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모색의 과정 속에서 '단순함'으로 더 소중한 것,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그리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살고자 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갈 때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 후회 없는 미래와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경영대학(학장=배종석)은 '제115회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LG-POSCO경영관 SUPEX홀에서 방역 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였다.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은 전재욱 경영대학 부학장의 학부 및 일반대학원 학사 보고로 시작했고, 배종석 경영대학장의 졸업식사가 있었다. 배 학장은 "고려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한다희(경영18) 졸업생 대표는 "졸업생들은 이제 학교를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한다. 그동안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학위기 수여에 이어 경영대학 윤성수, 김중혁 교수가 영상 메시지로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였다.

학위가운 대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흘가량 대여 신청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과 공부에 매진했던 건물 앞, 각자의 열정이 짙게 어려 있는 장소 앞에서 졸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한 가족,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지냈던 시간을 추억하고, 사진을 찍고, 학사모를 던지며 정들었던 학교생활을 기념하였다.

학번별 소식

55 회장 이득주

55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과 이득주 55동기회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美 · 中간, 韓 · 中간 갈등, 한 · 일간의 외교문제, 남북문제, 대통령 선거의 혼탁 등 대내외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 가려는 시점에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면 활동을 하는 모든 업무가 다시 마비되고 인간이 좋아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다수의 회원님들께 직접 전화를 걸어 단편적인 소식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공간(時空間)을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평안 무사 하시지만 몇몇 회원은 유명을 달리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고, 가족이 전화를 받아서 회원님들의 건강정보를 대신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통화가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수용자 요구에 의해 통화가 정지"된다고 안내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전화번호가 없어지며 생사가 불명해졌습니다. 인생말년의 진행궤적과 흐름을 또 다시 보는 듯합니다.

본인이 그간 파악한 단편소식을 요약 보고 드립니다.

- 부 음 : 송수항님(2021.10.10), 이태식님(2021.11.2), 민형기님(2021.12.2), 이우영님(2022.3.4)이 작고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전화번호 변경 : 이회대님 휴대폰 없앰. 종전 집 전화로 통화 가능함

동기 회원님들의 소재나 변동사항을 본인 또는 주변에서 밝혀주지 않을 경우 생사여부 및 소재가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친교가 있는 회원님들께서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백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전임 회장단 및 임원 회의 ●●●

2021.12.8 13시 역삼역 1번 출구 앞 '파크루안'에서 정시균 동기회장 초청으로 전임 동기회장들과 임원들의 합동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악화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정회장이 개별 전화통화로 의견을 수렴한 후, 동석한 전임 정광수, 엄종일 회장과 총무 이채영에게 수렴 결과를 설명하자, 정광수 전임 회장이 수렴된 의견대로 현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후임 회장을 물색하자는 안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함에 따라 정시균 회장의 연임을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연말 총회 인준은 코로나 사태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어 전임 회장단 결정대로 현 회장의 1년 연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영대 입학 60주년 및 회원 팔순 축하 국내 명승지 순례 실시 ●●●

'입학 50주년 및 칠순기념 백두산/고구려 유적지 탐방'에 이어 계획했던 입학 60주년 해외여행이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하여 국내여행으로 변경하여 진행된 '국내명승지 순례'는 당초 74명에서 37명으로 참가자가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하였다.
(현금 찬조회원 : 김윤장 100만원, 엄무성 100만원, 김길남 40만원)

〈순례 일정〉

경영61 알루미늄 공장 방문

- 2021.11.16부터 11.19까지 3박 4일간 우등버스 2대에 분승한 동기들은 서울 교대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 죽전 환승장에서 추가 탑승자를 탑승 시킨 후 첫 기착지 전주 한옥마을로 향했다. 동기회가 마련한 기념 조끼가 배포되고 최민자 감사가 준비한 머플러와 샌드위치와 양과자를 받으니 여행기분이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 향토음식점 '종로회관'에서 전주비빔밥과 반주로 배를 든든히 하고 한옥마을과 조선왕조 영정을 모신 경기전을 관람한 후 진안 마이산 탑사를 방문했다. 관광사의 착오로 마이산 북편 코스로 오름에 따라 유명한 돌탑과 탑사를 보지 못한 채 다음 기착지 여수로 출발한 것이 아쉬웠다. 여수'맛나게장'에서 명물 게장정식으로 저녁을 먹고 나니 시간이 늦어 여수밤바다 구경을 못하고 '쏘다 컬렉션 더 여수호텔'에서 첫날밤 짐을 풀었다.
- 둘째 날이 밝자 바닷가 '팔남매 식당'에서 해물탕을 아침으로 먹고 버스로 여수바다를 드라이빙 한 후 통영으로 향했다.
- 통영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섬들로 눈 호강을 하고 바닷가 '해물천지'에서 회덮밥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중앙시장을 돌아보고 부산으로 출발했다.
-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백사장을 거닐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들을 찍고, 유명한 인근 '언양불고기'에서 모처럼 육지음식(?)과 반주로 장거리 버스 여행의 피로를 풀고 숙소인 부산역 앞 '하운드호텔'에 둘째 날 짐을 내린 후, 스카이라운지에서 부산 야경을 감상하며 음료와 맥주로 벗들과 오랜만에 어울려 기분을 내보았다.
- 호텔 내 식당에서 조식을 마치고 오륙도 앞바다와 스카이웨이를 걸어보고 점심으로 남천동 '가야밀면'에서의 부산 명물인 밀면과 만두는 오영희 동기가 비용을 부담해주었다. 이어서 태종대 유람선 투어로 태종대의 기암기석의 아름다움과 바닷바람을 즐기고 나서 울산으로 향했다.
- 울산 온산공단의 세진메탈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규수 회장이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알루미늄 공장을 직접 안내한 전동기는 버스에 동승하여 '태화강 국가공원'으로 안내하였다. 저녁은 전동기가 마련한 퓨전 일식집에서 1인당 5만원이 넘는 고급음식으로 입 호강을 시켜주었다.
- 저녁 식사 후 전동기가 넣어준 과일과 음료를 싣고 백암온천으로 향했다. 백암스프링스 호텔에 짐을 푼 후,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밤을 국내 최고의 온천물로 몸을 푸는 호사를 즐겼다.
- 호텔 조식인 맛깔난 한식으로 배를 채우고 삼척 해신당 공원으로 이동하여 애절한 애바위 전설과 해신당, 그리고 국내유일의 남근숭배 민속이 전래되고 있는 공원과 민속전시관을 관람한 후, 해변의 '삼정식당'에서 해물로 점심을 먹으려 하였으나 방역단속반의 거리두기에 저촉된다하여 먹지 못하고 강릉 커피공장 '테라로사'로 향했다. 박수죽 부부가 비용 부담 한 커피와 갓 구운 빵으로 야외 테이블에서 허기를 달래고 특별한 커피의 향을 음미했다.
- 속초를 거쳐 미시령터널을 지나 인제 용대리의 '황태명품관'에서 '입학 60주년 및 팔순축하' 케익을 동기회장과 커팅하며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이날 생일을 맞은 오영희 동기의 특별한 생일을 축하하는 케익은 여동기들이 함께 커팅하였다. 또한 조 경 동기가 제공한 모두가 찬탄한 맛있는 황태정식은 이번 여행을 더욱 멋지게 장식해준 후 서울로 향했다. 저녁 8시 전에 서울에 도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무탈하게 여행을 마친 것을 자축하며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62 회장 윤갑중 / 총무 한상욱

62학번 동기회 회장단 ●●●

2022년 임인년 경영대학 62학번 신임회장으로 윤갑중 동기를 지난 2021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총무는 한상욱 동기를 연임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경영대학을 입학한지 60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동기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결의하였다.

윤갑중 회장

64 회장 김윤호 / 사무총장 민선용

백수회 11월 등산모임 ●●●

북한산 우이령에서

-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 장　소 : 북한산 우이령
- 참가자 : 고병선, 김광수,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우이령에서 64동기들과 만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중순 송추에서 고갯길을 넘어 우이동에 이르는 우이령길, 바위고개 언덕을 여럿이 넘는 만추의 북한산 뒷길 속자락은 그 깊이만큼 멋지고 아기자기한 길이었다. 모처럼 대부대가 모였지만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인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썰(대화)은 하룻밤을 지새워도 끝나지 않았으리라. 붉고 노란 단풍의 빛보다 더 미끈하게 나신을 보여주는 바위산 오봉의 아름다운 자태! 참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을 절감했고, 비록 어려운 코로나 방역 중이라도 건강 유지를 위해 둘레길을 가끔 걷자고 다짐하면서 경영64동기들은 하산 길에 핏빛 단풍을 온몸에 물들이고 '바위고개 언덕을 옛님을 그리워하며 눈물까지는 아니라도 가슴 적시는 옛 추억을 더듬으며'를 흥얼대고, 점심때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축이면서 방역이 끝날 때는 다시 정기 산행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백수회 12월 등산모임 ●●●

설화 핀 남산둘레길

- 일시 : 2021년 12월 19일(일)
- 장소 : 남산둘레길
- 참가자 : 김건수, 박명익, 박채길, 유성준, 이경희, 지동직

설화 핀 남산둘레길, 눈이 내리는 것을 강아지만 좋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군대에서 말단 사병시절 제설 작업 때나, 겨울 원거리 차량 여행 중 눈이 쏟아지면 짜증나거나 걱정이 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나이든 지금도 흰 눈 쌓인 산 자락길이나 소나무 위에 얹혀있는 눈송이를 볼라치면 가슴이 설레기까지 한다. 첫눈이 내렸던 12월 중순 번개 모임으로 소집되어 코로나를 이겨낸 동기 몇 명이 눈 덮인 남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동시를 읊어 본다. "눈 위로 가자. 눈 위로 가자. 눈 위로 가면 재미난다야. 눈 위로 가면 빠드득 빠드득 소리난다야." 예전에 추억 남은 눈길은 여전히 어린애처럼 즐거움이 솟구쳤고 아득한 먼 곳에서 반가운 손님이라도 올 것 같은 눈 내리는 날 호젓한 남산을 내려와 남대문 시장에서 탁주와 갈치조림 점심 식사 때 나눈 대화는 카타르시스처럼 코로나 불안감정 해소와 마음 정화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하루를 보낸 날이었다.

69 회장 이재선 / 제1총무 조현룡 / 제2총무 이영식

최상영 동기 빙모상 조문 ●●●

최상영 동기와 69동기회장단

한국 기업인과 일본 기업인을 이어가는 중심에 서 있고 2018년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상영 동기가 빙모 상으로 2022년 3월 5일 급거 귀국하였고 장례기간 중 정진택 모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동기들 및 동문들이 조문하여 위로하였다.

학번별 소식

우리의 산행은 계속된다. ●●●

- 10월 16일(토) : 관악산 경유 삼성산 칼바위의 장군봉
- 11월 6일(토) : 과천대공원 둘레길, 만추의 풍광을 즐기며...
- 11월 20일(토) : 삼성산 장군봉 경유, 호압사의 풍경소리와 흩날리는 단풍에 흠뻑. 젖은 오후 늦가을
- 12월 4일(토) : 청계산 청계사 방문 후, 망경대 오름
- 1월 3일(월) : 청계산 옥녀봉 신년 산행
- 1월 22일(토) : 관악산 K12 헬기장에서 연주대 설경을 만끽하고...
- 2월 7일(월) : 청계산 옥녀봉 하산 후 3차까지 뒤풀이, 모처럼 젊음을 과시해봄
- 2월 21일(월) : 바람에 휘날리는 눈 맞아가며 관악산 K12에서 소주라면으로 자축

석영회 산악회 고향방문 답사 이벤트 진행 ●●●

69석영회 산악회(회장 : 전선기)는 동기 고향 방문 답사 일환으로 산악회장과 함께 멤버인 임병길, 이동진, 정종하 등이 참여하여 승용차로 10월 24일 ~ 25일에 걸쳐 김제 벽골제, 금산사, 새만금 방조제, 고창 선운사, 정읍 내장산 등을 답사 여행하였다. (cf. 코로나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출발)

산악회

구자삼 동기 민간고용서비스 전문강사로 맹활약 ●●●

구자삼 교수는 2021년 4/4분기에 실시 된 고용노동부 주최 고용서비스업계 자율시정사업을 위하고 미래 한국의 핵심 산업이 될 고용서비스업계를 이끌어 가는 CEO들에게 미래 비전을 설파하는 전문 강사로 활약하였다.

구자삼 동기

이영식 동기 고용서비스부문 경기도지사 상 수상 ●●●

2021년 12월 22일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송년 총회에서 69석영회 제2 총무인 이영식 동기는 지난 2007년 이래 계속적으로 협회 사무를 보아 오면서 협회의 선진화를 견인하는데 앞장서 왔고 또한 민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유공자 부문 경기도지사(권한대행 : 오병권) 표창을 받았다.

이영식 동기

69석영회 동기회 집행부 송년 회동 ●●●

2021년 12월 23일 69석영회 집행부는 남산 진흙오리구이, 시민의 숲 숯불고기구이 파티, 장흥 1박 2일 여행, 청태산 휴양림 1박 2일 행사 등 매년 해오던 정기총회 야외 행사를 코로나 사태로 기어코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검토 차 집행부 회동의 시간을 가졌다.

69 동기회장단 임원 송년회

69석영회 2022년 설날맞이 행사 ●●●

2022년 설날을 맞이하여 69석영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동기들의 면역력 강화를 촉진키 위해 정관장 홍삼제품을 활동회원 전원(약 60명)에게 배송하였다.

74 경영회장 조군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11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1년 11월 6일(토)

오래간만에 경영74 남산모임을 코로나19 거리두기 제재 완화 이후 재개하였다. 아직은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이기에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7명의 동기들이 모여 오순도순 그간의 근황과 함께 삶을 나누고 남산의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만추를 즐기며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남산모임

경영74 2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2년 2월 5일(토)

오래간만에 경영74 첫 남산모임을 2월 첫째 토요일 9시 30분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10여 명의 동기들이 만나 남산 둘레길을 즐겁게 걸으며 삼사오오 모여 그동안의 소식들을 함께 나눈 후 냉면집에서 빈대떡과 만두를 시키고 막걸리를 정겹게 마셨다. 남산클럽 한호석 회장과 전 동기회장인 조철래 회장의 건배제의에 모두의 건강을 함께 기원했다. 식사를 배불리 하고 아쉽지만 구자형 사무총장의 마무리 선언으로 몇몇 동기들은 집으로 가고 나머지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향했다. 추가로 막걸리 한 잔씩하고 아쉽지만 헤어졌다.

남산모임

경영74 멘토–멘티 만남 ●●●

· 일　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래간만에 안암골 고대 앞에서 멘티들과 만나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멘토–멘티로 만난 지가 벌써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안암골에서 아들보다 어린 후배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다. 그 후배들이 취업하고 또는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특했고 게다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우리에게 주니 뿌듯하고 흐뭇했다. 경영대 후배들과 적지 않은 세월동안 이렇게 만나 그들의 고민도 듣고 그들의 희망을 느끼고 우리의 작지 않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니 참 기쁜 일이었다. 당시 한호석 74학번 동기회장과 제가 교우회 수석부회장이었던 때 이 후배들을 만나 지금까지 계속 선후배간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배들이 훌륭한 멘티로 성장하고 나아가 후배들도 멘토가 되어 새로운 멘티들과 연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멘토–멘티 만남

경영74 양평 동기모임 ●●●

· 일　시 : 2022년 2월 23일(수)

양평 74동기모임

양평역에서 10시에 만났다. 일산에서 출발한 친구는 30분 정도 늦게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 비록 날씨는 영하10도가 넘는 강추위였지만 기다리는 동안 잠깐 짬을 내어 어느 동산에 올라가 맑은 하늘과 길게 뻗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다시 양평역으로 가서 늦게 도착한 동기를 픽업하여 평화롭게 위치한 임도를 향했다. 양평 사는 동기 둘과 수원, 일산, 서울에서 온 동기 셋 이렇게 다섯 명의 경영학과 동기들은 한 동기의 인도 하에 어느 이름 모를 산에 올라갔다. 어느 정도 임도를 따라 올라가니 곧추 가파른 언덕길이 나와서 등산하는 기분이 났다. 땀을 흘리며 좀 더 힘을 내 정상에 올라갔더니 멀리 한 눈에 양평시내와 한강이 보였다. 풍경을 감상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내려와 시장하던 차에 어느 맛있는 음식점으로 향해 막걸리 한 잔에 추어탕과 전병을 맛있게 먹고 한강 강상면에 멋지게 위치한 동기의 사랑방에 들어가 와인을 나누며 옛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5시쯤 동기 집에서 나와 서울 가는 전철에 몸을 싣고 아쉽게 양평을 떠났다.

76 경영회장 문덕식 / 경영총무 김덕만

경영76 동기회 온라인 회장단 선출 ●●●

문덕식 회장

김덕만 총무

경영76 동기회는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부터 2년간 동기회를 섬길 새로운 회장으로 문덕식 교우(DB Inc. 대표이사 사장)를 선출하고 회장이 지명한 김덕만 교우를 총무로 승인하였다. 당초 76동기회는 2021년 12월,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 회장단(회장 : 장진원 교우, 총무 : 류만우 교우)을 이을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장소와 날짜까지 확정하였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어 부득이 취소하고 이날 110여명의 동기들이 가입된 단체 카톡방을 통해 동기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환영하였다. 새로운 회장단은 동기들의 기존 소그룹활동(골프모임, 등산모임, 바둑모임 등) 활성화, 비활동 중인 동기들의 동기회 참여 독려 및 애경사와 교우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78 회장 홍 승

경영78 번개 모임(용산양꼬치) ●●●

·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 오후 6:30

경영78 용산 번개모임

11월 1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홍 승 회장이 작년 11월 3일(수) 경영78 번개 모임을 소집하여 용산양꼬치에서 8명(홍 승, 계창민, 석락희, 오대용, 유재권, 이정열, 한덕철, 황순하)이 모여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거의 1년 만에 동기들과 함께 만취한 저녁이었다. 홍 승 회장은 풍성한 와인과 빠이주를 준비하였고, 저녁 비용은 이정열 동기가 찬조하였으며 참석자들은 3만원씩 회비를 모아 동기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다음달 12월 9일(목)에는 경영78 공식 모임을 개최하여 변함없는 우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대책 시행으로 아쉽게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황망하고 애석한 소식인데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진 속의 여유롭고 푸근한 모습의 황순하 동기가 2022.1.11.(수)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었다. 대학 입학했던 게 엊그제 같고 70년대 말 햇볕 따스하던 경영관이 생각나는데 너무 일찍 별세한 (고)황순하 동기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 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우리 경영78동기들 오래 오래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도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 학생대표 윤소담(경영21)

온라인 드림콘서트 외 KUBS Ladies 소식 •••

KUBS Ladies 굿이브닝 멘토링 프로그램 클로징 행사

KUBS Ladies 집행부원 모두는 온라인으로 보다 알차고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Dream Concert'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Dream Concert'는 매학기 진행되어 온 행사로, 고려대학교 교우님을 연사로 모셔 연사님의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강연을 듣는 행사이다. 이번 드림콘서트는 11월 19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인 강성윤 교우님(경영06)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최근 로스쿨 및 법조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학우들의 참여가 있었고, 참여한 학우들은 이번 행사가 자신의 진로 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 나가는 데까지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또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클로징 행사를 11월 26일에 진행하였다. 이번 클로징 행사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LG포스코경영관 쿠쿠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멘토님들과 멘티들을 직접 만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우수 활동 멘토님과 멘티, 그리고 팀을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클로징 행사 이후에는 학교 주변 식당(Murmur de gusto)로 이동하여 밥을 먹으며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클로징 행사는 20학번과 21학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행부 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오프라인 행사였다. 이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멘토님들과 멘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덕분에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1학기에 이어, 집행부 차원에서 온라인과 비대면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호랑이 등판', 경영대 내 여교수님의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엿볼 수 있는 '전지적 교수님 시점'과 같은 SNS 콘텐츠를 연재해 KUBS Ladies 공식 인스타그램(@kubs_ladies)에 게시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여 KUBS Ladies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개강 이벤트(3/2~3/8) 진행과 함께 18기 리크루팅(3/10~3/16)을 앞두고 있으며,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집행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a@kubsa.or.kr

■ 교우동정

오영교 (경영66)

2022년 3월 4일
오영교 교우가 동반성장위원회
제6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훈복 (경영81)

2022년 2월 28일
이훈복 교우가 대한토지신탁
대표에 연임되었다.

**구자열 (경영72/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2022년 2월 16일 구자열 교우회장이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의
새로운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남궁범 (경영82)

2021년 12월 7일
남궁범 교우가 에스원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최종구 (무역76)

2022년 2월 27일
최종구 교우가 율곡연구원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정지호 (경영82)

2021년 12월 16일
정지호 교우가 신한아이타스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권길주 (경영79)

2022년 2월 23일
권길주 교우가 하나카드
사장에 연임되었다.

김동회 (경영83)

2021년 10월 22일
김동회 교우가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주철수 (경영79)

2021년 12월 1일
주철수 교우가 서울신용보증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윤성호 (경영84)

2021년 11월 15일
윤성호 교우가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학래 (경영81)

2021년 11월 29일
박학래 교우가 티맥스A&C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주성 (경영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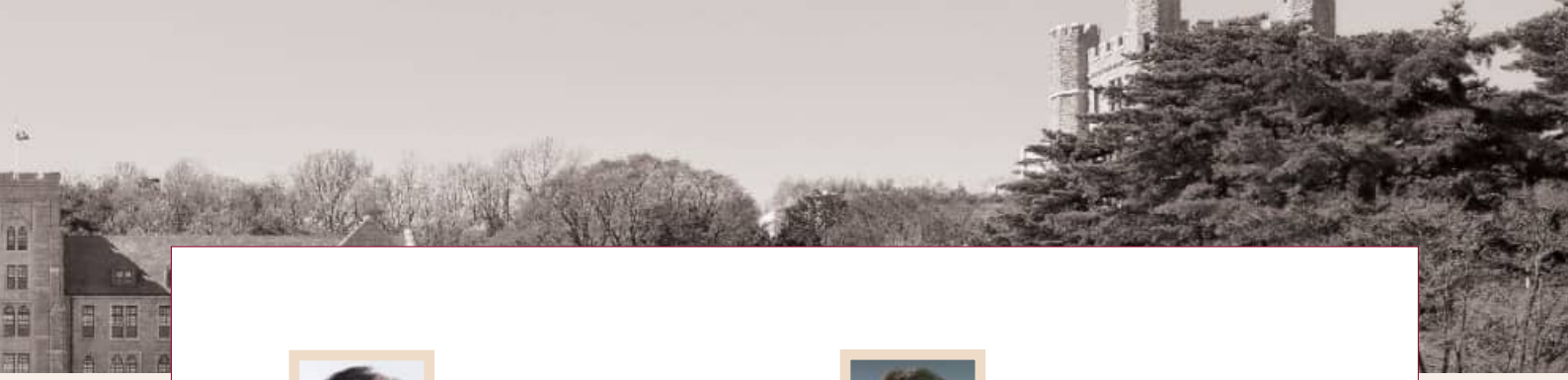
2021년 12월 27일
김주성 교우가 하나은행 리스크
관리그룹 부행장에 선임되었다.

유정준 (경영81)

2021년 10월 27일
유정준 교우가 SK 북미지역
총괄 책임자로 내정되었다.

남 철 (경영85)

2021년 11월 25일
남 철 교우가 LG화학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강도태 (무역86)

2021년 12월 29일
강도태 교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정광하 (경영86)

2022년 1월 24일
정광하 교우가 한국산업연합포럼 산하
미래산업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하범종 (경영87)

2021년 11월 25일
하범종 교우가 ㈜LG CFO겸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홍종성 (경영87)

2022년 1월 21일
홍종성 교우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총괄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다.

구자은 (경영88)

2021년 11월 10일
구자은 교우가 ㈜코리아넘버원마켓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홍주 (경영88)

2022년 2월 22일
김홍주 교우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에 임명되었다.

최재효(경영89)

2022년 2월 8일
최재효 교우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 취임하였다.

염창열 (경영90)

2021년 12월 2일
염창열 교우가 SK E&S 사업지원실
담당 겸 EQ-TF 담당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남상우 (경영92)

2021년 10월 13일
남상우 교우가 하나손해보험 디지털전략
본부장으로 선임되었다.

허준녕 (경영94)

2021년 12월 1일
허준녕 교우가 GS CVC팀장(부사장)에
선임되었다.

남화민 (경영97)

2022년 1월 10일
남화민 교우가 SM라이프디자인그룹
이사로 선임되었다.

■ 교수동정

송기철 (상46)

2022년 3월 17일(목)이 송기철 명예교수님의 100세 생신입니다. 저희 경영대학 교우회에서는 교수님의 100세 생신 축하 난을 보내드렸습니다. 교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호원

2022년 2월 28일 모교 경영대학
정호원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되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상범(경영78) 2022년 4월 23일 장남 김태엽 군
박주병(경영78) 2022년 4월 22일 장녀 박언진 양
이은우(경영78) 2022년 2월 27일 딸 이정미 양
전기수(경영78) 2021년 11월 19일 장녀 전유진 양
서동린(경영79) 2022년 1월 22일 아들 서지환 군
안희준(경영79) 2021년 11월 6일 장녀 안효연 양
이청기(경영79) 2021년 11월 27일 딸 이예은 양
임병갑(경영79) 2021년 12월 12일 장남 임희윤 군
편도원(경영79) 2022년 2월 26일 아들 편윤장 군
박성철(경영81) 2022년 1월 9일 장남 박재근 군
박종원(무역82) 2021년 12월 11일 장녀 박지은 양
정재욱(경영06) 2022년 2월 20일 본인 결혼
홍상현(경영08) 2022년 3월 26일 본인 결혼
조현석(경영09) 2021년 12월 12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형기(경영55) 2021년 12월 2일 본인 별세
이우영(경영55 / 94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2022년 3월 4일 본인 별세
김문웅(경영61) 2021년 12월 17일 본인 별세
최부웅(상62) 2022년 3월 3일 모친상
최상영(경영69) 2022년 3월 5일 빙모상
이세형(경영71) 2022년 3월 5일 빙모상
최광균(경영71) 2021년 12월 23일 모친상
신현정(경영75) 2021년 11월 1일 본인 별세
이종욱(경영76) 2022년 2월 15일 모친상
계창민(경영78) 2021년 11월 15일 아들상, 2022년 3월 1일 모친상
전기수(경영78) 2022년 1월 19일 빙모상
함종호(경영78) 2022년 2월 14일 빙모상
황동혁(경영78) 2022년 1월 29일 빙모상
황순하(경영78) 2022년 1월 11일 본인 별세
권길주(경영79) 2022년 2월 27일 빙모상
서학석(경영79) 2021년 11월 21일 빙모상
양원묵(경영79) 2021년 12월 18일 부친상
이일환(경영79) 2022년 1월 19일 모친상, 2022년 2월 24일 빙모상
장승호(경영79) 2022년 2월 6일 모친상
박형준(경영80) 2022년 2월 2일 부친상
박수근(경영81) 2021년 11월 29일 빙부상
서재균(경영90) 2022년 1월 9일 부친상
안재현(경영93) 2021년 11월 14일 부친상
윤성재(경영93) 2021년 12월 9일 빙부상

고려대 수호신 유휘성 교우, 국민포장 수훈

유휘성 교우(상58)가 국민교육 발전 유공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 13일 유휘성 교우를 비롯한 '2021 국민교육 발전 유공 훈 · 포장' 수훈자를 발표했다.

국민포장은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학술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국가 훈장이다.

유휘성 교우는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2011년부터 고려대 장학금과 연구발전기금, 의학발전기금 등을 지속적으로 기부했고, 4회로 졸업한 진천중학교에 교문을 건립해 기증하는 등 대한민국 고등 교육 발전 및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국민교육 발전 유공 훈 · 포장 전수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 확산 여파로 취소돼, 정진택 총장이 전수식을 거행했다.

전수식에서 유휘성 회장은 "상에 연연하며 기부한 것은 아니다. 죽을 때 수의에 넣어갈 수도 없는 돈, 꼭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고 좋은 일이다.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택 총장은 "이번 국민포장 수훈은 유휘성 선배님이 교육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나라에서 인정해준 것이라 더욱 뜻깊다. 유휘성 선배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과 고려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염원하는 연구지원기금,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심혈관 질환 연구 발전을 이끌 의학발전기금, 학교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는 직원 공로상 기금까지 다방면의 학교 발전을 이끌어주셨다. 학교에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신 유휘성 교우님이야말로 살아있는 고려대의 수호신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12월 14일자 대외협력처 기사 발췌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모교에 드리고 싶어”

고려대에 누적 74억 기부

2022년 새해를 맞아 유휘성 대표는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라며 1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 조흥건설 대표를 역임한 유휘성 기부자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11년간 고려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74억 원에 달한다.

유휘성 교우의 기부가 특별한 이유는 거액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염원하는 교원 연구지원기금,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심혈관 질환 연구 발전을 이끌 의학발전기금, 학교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는 직원 공로상 기금까지, 다방면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를 후원하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총장=정진택)는 2월 8일(화)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에서 ‘인성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기부식에서는 2021년 12월 유 대표가 수훈한 국민포장을 축하하는 환담이 오가기도 했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 고등 교육 발전 및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포장을 수훈하신 것은 유 대표님께서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나라에서도 인정한 것이라 뜻깊다. 모교 고려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해 더욱 자긍심을 높여드리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2월 8일자 대외협력처 기사 발췌

후배들이 품격 있는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고려대언론인교우회 대선배 3인, 쿠마(KUMA) 장학기금 1억5천만 원 기부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승명호 동화그룹·한국일보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만도 회장

고려대는 1월 19일(목) 오후 2시 고려대 본관에서 정진택 모교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 미디어학부 쿠마(KUMA) 장학기금 기부약정식'을 열었다.

고려대언론인교우회 대선배 3인, 곽영길(영문74) 아주경제 회장, 승명호(무역74) 동화그룹 · 한국일보 회장, 정몽원(경영74) 한라그룹 · 만도 회장이 쿠마 장학기금 1억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쿠마(KUMA, Korea University Media Academy)는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저널리즘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언론인교우회는 많은 고대생들이 쿠마에서 저널리즘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언론사 시험에 합격하여 역량과 품위가 있는 프로페셔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영문74, 고려대언론인교우회장)은 1월 19일(목) 열린 '고려대 미디어학부 쿠마(KUMA) 장학기금 기부약정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고려대 쿠마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목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현장 기획기사 쓰기, 방송뉴스 리포팅 실습, 칼럼쓰기, 저널리즘 이론, 뉴미디어 교육, 이슈 특강 등 실무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현재 교육 진행 중인 5기까지 109명의 학생이 위 프로그램을 거쳤으며, 2022학년도에 6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출신 전 · 현직 기자와 본교 교원이 직접 교육을 제공하며 수강생의 60% 이상이 주요 언론사에 합격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기부약정식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괘척해주신 쿠마 장학기금은 장래 언론인을 희망하는 많은 후배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널리즘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언론인의 꿈을 이루게 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www.korea.ac.kr

봄의 벽에 서다

도서명 | 봄의 벽에 서다
저 자 | 황인강(상61)
출판사 | 에세이문예사
출판일 | 2022. 2. 24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학세계

문학은 언어의 형상화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천착하는 학문이다. 복잡다기한 인생 역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재조명 작업은 문학의 고유기능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노정되고 있는 갖가지 부조리현상을 바라보면서 새삼스럽게 문학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중 한 장르인 수필세계도 인간의 심성을 정화 고양시켜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하게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

지난 20여 년간 문학 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선성회복의 주제를 안고 살아온 수필가다.

저자의 글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심성 정화와 아름다운 사회 건설에 지향점을 두었다. 문장의 행간마다 성찰과 의미를 곱씹는 정감이 물씬 풍겨 나와, 읽는 맛을 북돋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AI 경영

도서명 | 위드 코로나 시대의 AI 경영
저 자 | 양준영(경영62)
출판사 | 경문사
출판일 | 2021. 11. 5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클라우드(Cloud) 컴퓨팅,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용어들이 각종 매스컴들에 나오고 있고,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산업적, 경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AI와 결합한 기계나 장비 등은 휴가나 의료혜택, 퇴직금 없이도 사람보다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명암은 경제 · 사회 모든 부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 변화는 곧 직업 변화로 이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팬데믹 시대의 변화를 짚어보고 2025년까지 기술 변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상관관계를 조망한 보고서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2025년까지 일자리는 오히려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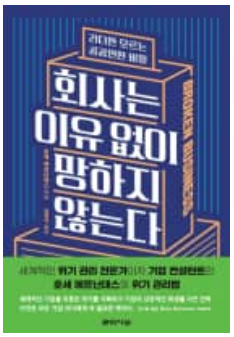
그렇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조직경영의 영역을 고려한 큰 그림의 설계가 필요하고, AI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전략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인 경영학박사 양준영 교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 속 대두되는 AI 경영의 가이드북을 집필하였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기술 속 경영자, 관리자, 종사자들에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회사는 이유 없이 망하지 않는다.」를 읽고..

구 자 형

경영74
경영대 교우회 전 수석부회장



전문적인 번역 작가인 김경식 교우가 며칠 전,
문학사상에서 출간한 '회사는 이유 없이 망하지 않는다.'란 호세 에르난데스가 지은 책을 하루 만에 읽었다. 이 책은 기업의 위법 행위에 숨어 있는 시스템 실패에 관한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윤리적 완전성에 힘 실어주기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 길잡이와 행동지침서로 도움을 줄 것이다.

리더는 윤리와 준법 문제에 대해 소통할 때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닌 참회의 목소리를 내어 변화를 위한 개방성과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모든 긍정적인 소통과 협조는 리더, 특히 CEO가 자신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이뤄진다. 만약 CEO가 주요 관리자의 비리나 비지니스 파트너의 의심스러운 업무관행을 묵인한다면, 투명성과 청렴함에 초점을 둔 변화는 이룰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덜 익은 바나나를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는 팔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의 문화를 재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즉 적절히 대응하고 헌신하는 리더들, 책임감 있는 업무 관행, 처음부터 일을 올바르게 진행하려는 정신,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보상과 처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서로를 격려하고 활기가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그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상호 돕는다.

결국 이 책의 중심 메시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윤리적 완전성의 선을 넘나드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회사에 기여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영웅과 악당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의 리더는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변명해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으며 재임 기간 동안 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카리스마가 있지만 타협적인 리더를 알아보고 자리에 맞는 적절한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부 고발자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윤리적 완전성에 힘 실어주기를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요즈음 시기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의적절한 책으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우리 교우님들도 즐거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사보생 (臥死步生)

이득주
경영55

왕성했던 20대를 지나 정년을 맞고 퇴직을 한 후 30여년이 지나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소화불량, 언어장애, 시력장애, 청력감퇴, 기억력감퇴 등등 알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든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내용이 건강에 관련된 것이 많아진다. 건강에 좋은 약(藥), 건강에 좋은 음식(飮食), 건강에 좋은 운동, 건강에 좋은 정신자세와 마음가짐, 건강에 좋은 환경 등이 화제에 많이 오르내린다.

우리 인간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보내는 일생을 가지고 있는데 유소년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운동량, 활동량이 줄게 되고 활동량이 줄게 되면 소화불량이 되고 소화불량이 되면 자연히 소식(小食)을 하게 되고, 소식을 하게 되면 영양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또한 수면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변(大便)이 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생존여명(生存餘命)이 단축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소식다동(小食多動, 蔬食多動), 와사보생(臥死步生) 등도 화제 중 하나로 종종 등장한다. 와사보생(臥死步生)은 요즘말로 '누죽걸산'과 같은 뜻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을 살펴볼 때 대략
1980년대는 72세
2000년대는 83세
2020년대는 85세이니,
2030년에는 100세가 예측 될 것이다.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과학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로 2030년대는 아마도 100세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평범한 인간들이 평생에 피해야 할 일이 있다면
①초년출세 ②중년상배 ③말년무재라 하던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걷기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간섭 없이 가장 손쉽고 자기판단과 결심과 실행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담이 적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와사보생(臥死步生)이라는 말이 있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누죽걸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되었나 싶다. 60, 70도 못살고 남은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비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각 이후 즉시 실행함이 건강장수의 지름길임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시대의 영웅

황인강
상61 · 수필가

옛 추억이 스멀스멀 떠오른다고 했던가.
6년 전이다, 고려대 ROTC 3기 무호회 40여명이 임관 기념으로 동해안을 다녀왔다. 강릉 속초를 지나 고성으로 버스는 북쪽을 향해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이 있는 화진포까지 북상을 했다. 50여 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가본 기억이 아물아물했다.

망망한 바다와 주위 경관이 수려해서일까. 그곳에 6.25전쟁 도발자의 별장이 들어선 것에 갖가지 망상이 떠오른다. 뒤쪽의 산모퉁이를 돌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으로 버스는 낮은 언덕을 올라갔다. 별장이라면 그만한 넓이와 아담한 건물을 갖춘 곳으로 생각되지만 작은 사랑채 같은 느낌이다. 작은 가옥은 나라 건설 위업의 치적(治績)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하기는 동란이후에 기념비적인 가옥일 수밖에 없겠지만.

세월은 야속하여 건국 초기 대통령이 누구인가 할 정도로 잊고 지내왔다. 역설적이지만 토끼를 잡고 데리고 갔던 사냥개까지 잡아먹었다는 토사구팽(兎死拘烹)의 한 고사가 잠깐 머리를 스친다. 건국 초기에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 위업이 결국은 토사구팽의 신세가 될 줄이야. 지금까지 잊고 살아온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몽유병 환자처럼 아스라이 잊고 지내온 세월에 송구스러움이 마음을 짓눌린다.

그동안 생각해볼 겨를도 없고 매스컴에서도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분은 바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이다. 오히려 그분을 매국노라고까지 하며 건국 역사에서 지워버릴 기세였으니 어찌 기억에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초석을 다진 건국 초기의 영웅은 국민의 뜨거운 추앙을 받았다.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선출하여 12여 년 나라를 이끌었다. 초기의 좌우 이념논쟁으로 무질서,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은 나라사정은 오죽 했겠는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파괴와 배고픔의 역사를 겪은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견디며 지내왔다. 어느 나라든 초대 건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추앙을 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과 나라를 세운 헌신에 머리를 숙이고 기념한다. 일제(日帝)로부터 해방이 되어 주권을 되찾아 국회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선출과정이며 3.15부정선거로 국민의 민주항쟁을 불러일으킨 슬픈 과오가 있었지만, 해외로 망명하여 숨을 거둔 애국자의 종말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곳은 산이 가로막혀 푸른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한 시대의 대통령 별장으로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 여기에 몇 번이나 왔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옛날의 별장은 간곳없고 새로 지은 것이겠지. 조그마한 사랑채 같은 가옥이다.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집무실이라는 자그마한 방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뒤에 초상화 액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액자를 보는 순간 '저분이 누구인가'하는 초면의 어슴푸레한 인상이 스쳐 지나간다.

그동안 건국대통령의 얼굴사진을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기 때문인지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좌우 진영의 무질서 무법 폭력을 수습하여 해결해 낸 분이 아닌가. 6.25전쟁을 겪으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낸 분이다.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전쟁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지금의 38선으로 씻지 못할 분단이 되고 말았지만. 전쟁의 참상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의 원조를 받아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나 싶다.

그의 약력과 치적을 본다. 유학시절부터 미국에서의 활동, 저 멀리 임시정부 활약상과 6.25전쟁을 당하여 전쟁을 치른 그때의 모든 활약상이 자세히 나열 되어 있었다. 그뿐인가. 그의 국제무대에서의 외교관으로서의 탁월한 업적을 어찌 일일이 열거할 수 있을까. 그 치적을 국민은 다 안다. 그 당시의 반대자들과 일부 인사들이 그의 활약상을 폄하하고 독재자라는 멍에를 씌워 해외에서 타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과거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어떻든 나라를 새로이 출발시킨 대통령이다. 해방을 맞아 국가를 새로 건설하는데 과오가 어디 한 두 가지뿐이었을까.

설상가상으로 6.25까지 발발하여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생이별과 천만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배고프고 죽어가는 마당에 외국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때, 우리를 살아남게 한 지도자를 어떻게 길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건국초기 나라 살리기 위해 몸 바친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국민적인 추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그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애국충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리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멸사봉공하신 분들을 온몸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자기 가문 집안의 어르신과 조상님의 위업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듯이, 초대 건국대통령의 치적을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자세가 아닐까.

女心

김 진 하
상66·시인

바깥에 눈발이 날리고 있다. 봄인 줄 알았더니 꽃샘을 하는지
다시 추위가 오는 것 같다. 그저께는 마루에 있는 화분들의 분갈이를 하여
대부분 베란다로 옮겨놓고 무화과나무와 꽃치자나무는 좁은 화분보다는
직접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정원으로 옮겨놓았다.
내 딴에는 완전히 봄 채비를 한 셈이다.

그런데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 새벽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베란다에 있는 꽃나무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는데 아내가 벌써 꽃기린은 다시
마루로 옮겨놓았다. 나도 은근히 걱정이 돼서 알로에와 군자란을 다시
마루로 옮겨놓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가서 다른 꽃나무들을 살펴보니
다행히 동상에 걸리지는 않은 것 같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커다란 비닐봉지 두 개를 들고 오길래
그거 뭐 할라고 그러요 하니
마당에 심어놓은 무화과나무와 꽃치자나무를 얼지 않게 덮어 주어야겠다고 한다.
눈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둘이서 정원으로 내려가서 큰 비닐봉지로 덮어 주고
올라온다. 두 나무가 잘 살아나서 봄을 맞이해야 할 텐데.

아내는 아직 2월도 안 넘어갔는데 그 새 참지를 못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겨우내
잘 보살피던 꽃나무들 죽이겠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3월이 되면 마루에 있던
꽃치자나무가 하얀 꽃을 피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풍길텐데 하면서 아쉬워한다.
그러고 보니 내가 서둘러 봄을 맞이하려고 너무 일찍 수선을 떨었던 것 같다.
그래도 두 나무가 얼지 않게 비닐봉지를 덮어 주자고 아이디어를 낸
아내의 곰살맞은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든다.

이베리아반도 여행기 3

허 창 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11월 27일(월) – ②

프라도미술관을 나와 시내 관광을 했다.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에스빠냐(스페인) 광장의 세르반테스 공원이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1547–1616) 서거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원래 스페인에는 카스티야, 아라곤, 나바라, 레온 등 4개 왕국마다 각자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언어가 일반화되면서 오늘날의 스페인 표준어로 정착되었다. 문학의 위대한 힘을 실감할 수 있는 예의 하나다. 그가 돈키호테를 구상했던 것은 그라나다에서 세금 징수원을 하는 동안 책임자와의 불화와 책임자의 먹튀, 기타 억울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세비야 감옥에 7개월간 갇혀있는 동안이었고, 한때 해적선에 붙잡혀 노예 생활을 했던 특이한 경험이 그의 소설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생애는 군인, 세리, 소설가, 시인, 극작가 등 다채로웠으나, 생애 동안 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의 생활이 풍족했다면 그 위대한 문학이 탄생했을까?

공원에는 거대한 탑이 있는데, 탑의 중하단부에 세르반테스의 정중한 흰색 좌상이 붙어있고, 그 앞으로 돈키호테와 산초의 청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 청동상 앞에 있는 네모진 연못에는 공원의 우거진 수목과 시가지가 고즈넉이 비치고 있다.

세르반데스 흰색 좌상과
돈키호테 · 산초의 청동상

마드리드 개선문

스페인 중앙우체국 앞
시벨레스분수

마드리드 깃발

구경할 곳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만 빨리 흐른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독립 광장으로 가서 마드리드 개선문(알카라문)을 보았을 것이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긴 알칼라 거리에 있는 이 문은 1778년 카를로스 3세의 마드리드 입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로마의 개선문처럼 만들라는 카를로스 3세의 명에 의해 이탈리아 건축가 프란체스코 사바티니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했는데, 10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건설되었고, 모두 5개의 출입구로 이루어졌다. 카를로스 3세 탑이라고도 불린다. 독립 광장이란 이름은 1813년 스페인 독립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페르난도 7세가 왕좌에 복귀하면서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공원인 레티로 공원과 솔 광장 사이에 있는 시벨레스 광장으로 갔다. 광장 중앙에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벤투라 로드리게즈가 설계한 시벨레스 동상과 시벨레스 분수가 있다. 시벨레스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며 제우스의 어머니인데, 그리스-로마의 신을 스페인식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시벨레스 조각상은 대리석 수사자 두 마리가 이끄는 사륜마차 위에 앉아 있는 좌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마드리드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하는 날이면, 축구팬들이 이곳에 몰려와 승리를 축하하며 분수에 뛰어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벨레스 분수도 아름답지만, 그 맞은편의 스페인 중앙우체국 건물이 더 멋있다. 이 우체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체국 건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광장 주변에는 다른 주요건물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마드리드 시청사, 스페인 중앙은행, 육군본부 건물인 팔라시오 부에나비스타, 그리고 아메리카문화원인 리나레스 등이다. 하나같이 매혹적인 건물들이다. 왜 한국에는 저런 건물들이 하나도 없을까? 재능의 부재일까? 재원의 부족일까? 문화의 차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한탄스러울 뿐이다.

건너편 광장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하도로 들어갔다. 도심의 지하도치고는 굉장히 긴 것이었다. 열차들이 스페인의 사방팔방으로 떠나는 아토차역이었다. 스페인의 철도역은 모두 지하에 있단다. 드넓은 지하도 양쪽은 차량기지로 수많은 열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용수처럼 잘 다듬어진 측백나무 정원수가 줄 지어선 레티로(Retiro) 공원이 아토차역 위 동쪽으로 광활하게 뻗어있다. 마드리드 시민들의 일급 휴식처다.

레티로 공원

넵튜(포세이돈)의 동상과 분수가 있는 카스티요 광장을 찾았다. 소라껍데기로 만든 전차 위에 삼지창을 휘두르며 서 있는 넵튜을 두 마리의 해마가 전차를 끌고, 여러 마리의 돌고래와 바다표범들이 둘러싸고 있는 동상이 특이하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분수도 이색적이었다. 꼭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물처럼 보이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먼발치로 보며 지나쳤다. 그 건물 입구 양쪽에 왕실 문장인 사자상이 보였다. 옛 합스부르크가 왕가의 궁궐이며, 부르봉 왕가의 궁궐을 주마간산격으로 지나치고, 마드리드 주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내려 잠깐 둘러볼 시간을 가졌다. 유명한 솔 광장이었다. '태양의 문(Puerta del Sol)'이라는 솔 광장 한가운데 카를로스 3세의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이곳으로부터 스페인 각지로 통하는 9개의 도로가 시작된다고 하여 0km라는 표지판이 주정부

솔 광장의 곰 동상

청사 앞 도로바닥에 박혀있다. 옛날에는 이곳이 딸기나무가 무성하고, 곰이 많이 살던 언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드리드의 상징은 지금도 딸기나무와 곰인데, 광장 한쪽에 검은 곰이 딸기나무에서 딸기를 따 먹는 동상이 있다. 한민족도 곰의 자손이어서 나는 친근감을 느끼고 그 곰을 쓰다듬었다. 한편 주정부청사 전면에는 빨간 바탕에 별 7개가 그려진 직사각형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 또한 마드리드의 상징물이라고 한다. 이 솔 광장은 슬픈 역사가 어려 있다. 나폴레옹에게 항거한 민중봉기 때의 처형이 이 광장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림이 우리가 프라도미술관에서 보았던 고야의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다.

최대의 쇼핑거리라는 그랑비아 거리라든가 몇몇 거리를 더 경유하여 우리가 마요르(Mayor)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렸다. 이 광장은 스페인의 전통적인 모습을 갖춘 광장으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던 장소이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4층 건물들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으며, 광장의 중심에는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귀족의 주택으로 지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귀족들을 이곳으로 모여 살게 했다고 한다.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주거공간이다. 이 광장 주변에는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하여 언제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바로 옆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 각종 장식품과 의류 등을 살 수 있는 산 미구엘 시장이 있어 구경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여 물건값이 쌀 줄 알았는데, 원래 귀족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시장이어서 지금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살만한 과일류가 눈에 보였지만, 일행은 대부분 눈요기만 하고 헤어졌다.

마요르 광장과
펠리페 3세 기마상

귀족 아파트라고 하여 가이드에게 이 아파트들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대체로 45평에서 55평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더니, 아마도 하급귀족들의 주거공간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세히 보니 아파트 동쪽 벽면은 수십 개의 나체화가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귀족들의 퇴폐의식을 부채질하는 것인가? 주거지로는 특이한 광경이었다.

이렇게 시내 관광을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로 작은 쇼핑몰에 가서 쇼핑시간을 가졌다. 또 저녁 식사 전까지 여유시간이 있다고 하여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도 식료품 등을 샀는데, 나는 방 동료의 권유로 국화꽃 차(茶)를 세 갑 샀다. 동료에게 왜 국화꽃 차를 샀느냐고 물었더니, 첫째 눈에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입 맞출 때 향기로우며, 특히 부인들에게는 부인병에 효험이 있다고 말했다.

11월 28일(화),

현지 여행 4일째다. 마드리드를 떠나 톨레도로 향했다. 가이드는 버스를 타자마자 이제 스페인에 왔으니 최소한의 스페인 말을 배우고 가라고 말했다. 첫째, 안녕하세요는 '올라', 둘째, 감사합니다는 '그라시아', 셋째, 물은 '아구아', 넷째, 헤어질 때 인사는 '아디오스', 다섯째, 화장실이 어디예요는 '아세요'라는 것이다. 모두 그 용어들을 암송하느라 한동안 버스 안이 떠들썩했다.

산 미구엘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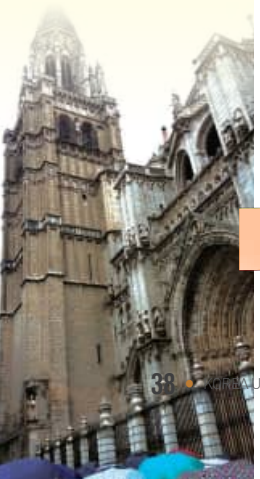
톨레도 전경

톨레도의 정치적 변천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2세기(B.C.193)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폴비우스 노빌리오르에게 정복된 후 톨레툼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주요 식민도시가 되었다. 그 후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스페인으로 대이동을 해온 것은 A.D.494년이었고, 497년경에는 별 저항 없이 이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에 따라 6세기 초에는 서고트족 왕국의 수도를 톨레도로 정하였고, 712년 이슬람계인 무어인들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약 200년간 계속되었다. 이베리아반도를 점령한 이슬람계 무어인들은 1085년 카스티야-레온왕국의 알폰소 6세(재위 1065-1109)와 저 유명한 엘시드 장군에 의하여 이곳에서 패퇴할 때까지 372년간 이 도시를 수도로 삼았다. 알폰소 6세가 정복한 후에 이 도시는 다시 수도가 되어 스페인 정치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슬람교도의 통치 기간에는 포용정책을 시행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도들의 집단인 모자라브 공동체의 본거지는 툴라이툴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 영향으로 이슬람의 칼리파 왕조시대에 예술과 과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이 톨레도의 분수이다. 알폰소 6세 또한 종교적 포용정책을 시행하여 그리스도교 통치하의 이슬람 문명을 낳게 했다.

톨레도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도시로 구도시 전체가 타호강으로 둘러싸여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도시를 차지했던 로마인, 서고트족, 무어인, 그리스도교도들의 축성 특징이 이 성벽에 지금도 각각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1560년 수도가 마드리드로 옮겨진 후 쇠퇴하여 현재는 관광도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으로는 강철산업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고대 무기들-칼, 방패, 갑옷 등 품질이 우수한 장식용 무기들을 생산하여 그 방면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도시는 아직도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유적이 공존한다. 시 전체가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구시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북쪽 산 중턱의 도로에서 서쪽으로부터 엘시드 성이며, 톨레도 주교좌성당이며, 기타 허공을 찌르는 수많은 고딕식 건축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엘시드 성안에 엘시드 장군의 묘가 있다고 한다.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세력을 축출하는데 알폰소 6세와 함께 엘시드 장군은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나중에는 알폰소 6세와 불화했다.

엘시드 장군의 최후는 이러했다. 적군과의 교전 중 가슴에 화살을 맞고 거의 낙마할 뻔하다가 겨우 성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저녁 엘시드는 가슴의 화살을 뽑지 않고 부러뜨려 갑옷으로 가린 채 발코니에 나왔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과 시민들에게 "발렌시아 시민들이여, 내일 아침 나는 공격을 이끌 것이다."라고 짤막한 명연설을 남겼다. 죽음이 임박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같다고 할까. 그날 저녁 그는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부하들은 죽은 엘시드를 말 위에 고정하여 앉히고 선두로 나가게 하여 사기충천한 스페인군이 그의 모습에 겁먹은 이슬람 무어 군대를 새벽 풀숲에서 이슬 털어버리듯 대승을 거두었다. '엘시드'라는 이름은 이슬람 말로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적에게도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장군이었다. 이순신 장군처럼.



톨레도 대성당

구시가지로 들어가 처음 찾은 것은 톨레도 대성당이었다. 이 성당은 이슬람 왕국 시절에는 이슬람교 사원이었는데, 알폰소 6세가 수복하면서 가톨릭 성당으로 개조하였다. 그 후 알폰소 8세(1158–1214 재위) 때 이슬람 왕국 알모아데의 술탄에 맞서 라스나바스데 톨로사 전투에서 대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톨레도 성당을 증축했다. 그 후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227년 페르난도 3세가 프랑스 고딕 양식으로 건축을 시작하여 266년만인 1493년에 완성되었으나, 2세기가 넘도록 지어져 여러 건축양식이 혼합되었다. 성가대실의 의자마다 새겨진 톨레도 역사에 대한 각종 화려한 조각품이며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돔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대리석 기둥의 조각들은 어우러져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본당 우측의 보물실(Sala del Tesoro)에 있는 성체현시대(聖體顯示臺 : Custodia)는 전체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5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무게는 180kg이나 된다고 한다. 대사원의 성가대실은 미술관으로 되어 있어 엘 그레코와 고야의 작품이 전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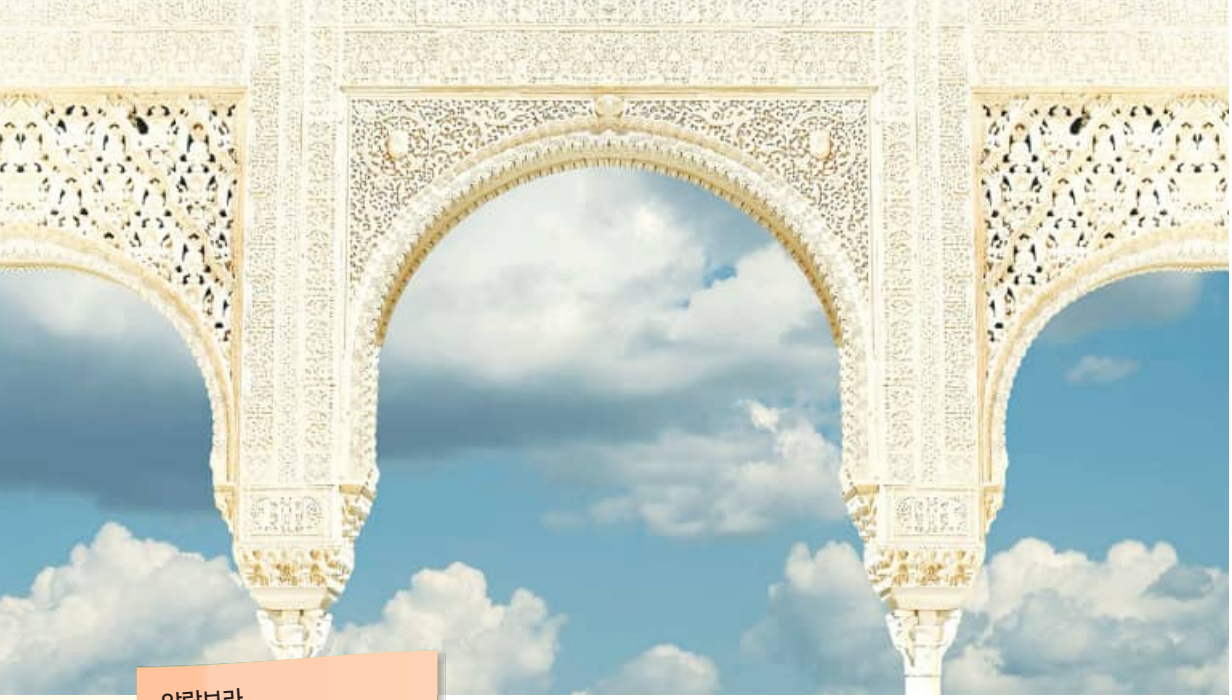
다음으로 산토 토메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는 단연 엘 그레코의 '콘데 데 오르가스의 묘지'라는 그림으로 명성이 드높다. 카스티야왕국의 수석 공증인이었으며, 톨레도지방의 귀족이었던 오르가스 백작은 1323년 사망하였는데, 성당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소외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준 선인이었다. 장례식에서 성 스테파누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직접 그의 시신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엘 그레코가 9개월에 걸쳐 1586년에 완성한 이 성화는 상부 천상의 세계는 천사들이 비상하는 수직의 효과를 표현주의 화법으로, 하부 지상의 세계는 사실주의 화법으로 표현했다. 그는 인물은 길쭉하게, 여성의 손가락은 가냘프고 기다랗게 길게 표현함으로써 매너리즘을 거쳐 표현주의 기법의 선구자가 되었다.

톨레도 관광을 마치고 콘수에그라 풍차마을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곳에서 말로만 듣던 스페인 전통음식 하몽을 먹었다.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인데, 대개 익혀 먹지 않고 그냥 얇게 썰어 먹는다. 워낙 비싼 음식이라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콘수에그라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풍차마을이다. 멀리서 보면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하고 앙증맞게 생겼지만, 다가갈수록 웅장하고 거대한 풍차가 높은 언덕 위에서 라만차 평원을 지키듯 서 있다. 마치 고깔모자처럼 생긴 지붕에 4개의 날개가 달린 풍차는 원기둥 형의 하얀 몸통이 받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날개가 느리게 돈다. 저 아래 언덕 밑으로는 주택들의 붉은 지붕이 대조적인 풍경을 그리고 있다. 옛날에는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드는 장치였는데, 지금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에 남아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풍차마을을 떠나 그라나다로 향했다. 그라나다라는 말은 석류(石榴), 수류탄, 수도(首都)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진다고 한다. 석류가 많이 생산되는 고장이라 시의 문장(紋章)에도 석류가 그려져 있다. 스페인의 13위 도시로 인구는 약 24만 명이다. 스페인 남부에 자리한 그라나다는 같은 이름의 지방 수도이며, 넓게 보면 안달루시아 자치지방의 주요 도시이다. 이 도시는 8세기 중반 756년경 엘비라(Elvira) 도시의 통치자였던 아브드 알 라흐만이 알바이신(Albayzīn) 언덕에 첫 이슬람 요새를 건축한 데서 유래했다. 그 요새가 바로 카디마(Alcazaba Qadima) 요새였고, 요새의 중심부는 현재의 산 니콜라스 광장(Plaza de San Nicolás) 자리였다. 그 이래 많은 이슬람왕조가 부침하면서 요새 아래 다로(Darro) 강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이 도시는 모스크, 시장, 물 저장소, 성벽, 그리고 여러 성문을 축조했다.

콘수에그라 풍차마을



알람브라

그라나다 깃발

지리(Ziri) 왕조(1025–1090)와 나사리(Nasarī 나스르라고 불리기도 함) 왕조(1238–1492)의 지배 아래 그라나다가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된다. 알바이신 언덕은 지리 왕조를 위한 공식 거주지로 자리 잡았고, 나스르 왕조의 건립과 함께 알람브라(Alhambra) 언덕은 왕국의 정치 권력의 중심지 및 왕가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그라나다는 최고 번영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그라나다 야경관광. 야경관광은 선택사항이어서 일행 중 몇몇은 참가하지 않았다. 가이드를 따라 구시가지 제2전망대인 산 니콜라스 광장에 이르렀다. 광장에는 벌써 관광객들로 만원이다. 알람브라 궁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 타레가의 '알람브라궁의 추억'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근대 기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기타 음악가 타레가는 운명적인 제자 콘차 부인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는 스승을 거부했다. 이에 상심한 타레가는 그녀를 떠나 스페인 곳곳을 떠돌다가 알람브라궁에 와서 그 아름다움에 실연의 아픔을 삭이며 이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 벌써 40여 년 전 신입사원으로 클래식에 심취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자주 그 음악을 들으며 '알람브라궁은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일까'하고 상상했었다.

그라나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알람브라 성은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을 융합한 궁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임은 물론이다. 1238년 나스르왕조가 그라나다에 자리 잡은 뒤 성안에 궁전이 건설되기 시작해 1358년 7대 왕인 유스프 1세 치세에 그 화려한 궁전은 완성되었다. 알람브라는 아랍어로 '붉은 성'이라는 뜻인데, 성벽이 붉은빛을 띠고 있어서 붙였다는 이름이다. 알카사바 요새 부분과 카를 5세 궁전, 나스르 궁전이 은은한 황금빛으로 어둠을 사르며 공중에 부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별세계(別世界)였다. 그 전설의 궁전으로부터 낭랑한 코란의 암송이 들리는가 하면, 오늘 밤에도 흥미진진한 아라비안나이트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듯했다. 정말이지, 그것은 암흑의 허공을 헤치며 우미한 율동을 멈추지 않았다. 내일이면 그 모든 궁을 대면할 것이다. 가슴이 설렌다.

밤인데도 거리의 여자 악사는 스페인풍의 구슬픈 곡조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집시음악 같기도 하다.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어 이 거리의 악사 앞에 놓인 동전 그릇에 넣어주었다. 산 니콜라스 광장을 떠나 중세의 골목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옛이슬람 사람들의 거리, 그리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좁디좁은 유대인 골목길을 수없이 지났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보다는 이슬람교가 유대교에 더 관용했다는 것이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알람브라 궁전과 저자

끝날 무렵 어느 음식점에 들르니 보통 맥주보다 2°이상 독하다는 알람브라 맥주와 상그리라 칵테일이 나왔는데, 나는 후자를 택하여 여행의 미각을 돋우었다. 우리 테이블에는 광주에서 왔다는 구수하게 생긴 부인, 전주에서 왔다는 미모의 나이 지긋한 부인과 내 방 동료 금씨가 합석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광주 부인과 전주 부인은 고교 동기생이라고 했다. 얼굴이 백옥 같은 전주 부인을 보니 홀로 두고 온 아내가 그리웠다.

호상 115호에 계속 연재

사 진 출 처

■ 마드리드 개선문	스페인올레
■ 레티로 공원, 산미구엘시장, 알람브라, 알람브라궁전의 야경	스페인관광청
■ 스페인 중앙우체국 앞 시벨레스 분수, 마요르 광장과 펠리페 3세 기마상	바르셀로닷컴
■ 세르반테스 흰색 좌상과 돈키호테 · 산초의 청동상, 솔 광장의 곰 동상, 톨레도 전경, 대성당, 콘수에그라 풍차마을, 알람브라궁전과 저자	허창무 교우 제공

알람브라 궁전의 야경

‘동상이몽’ 시진핑과 푸틴, ‘동병상련 고백’ 정상회담

이 경 순
상61·수필가
칼럼니스트

이 시대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는 이미 끝났고 지금 미국의 최대 이슈는 자신의 동맹국이 과연 중국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그 포위망은 제1도련선 안쪽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배제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도 세계의 중심 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급조된 동상이몽의 시진핑의 꼬드김에 장단 맞춘 푸틴간의 ‘동병상련’의 영상(映像)정상회담이 2021년 12월 15일 열렸다.

1. 시대의 키워드,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없는 나라로!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규칙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길이다.
첫 번째,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두 번째, 무기체계의 결속력은 인종과 언어보다 더 강하다.
세 번째, 물보다 진한 게 피라면, 피보다 진한 것은 석유이다.
네 번째, 무역 루트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뗏목도 띄우지 말라.

이처럼 이 세상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린은 바로 위의 네 가지 질서이며 규칙이고 시대의 키워드다. 이러한 것들이 국제무대에서 역린으로 굳어지게 된 이유는 오늘날 전 세계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주요 먹거리가 결국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코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밥그릇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가 나타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저지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질서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이 4가지 규칙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이 모든 규칙들을 어긴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러시아는 약간 결이 다르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일대일로 계획은 현대판 실크로드라

불리는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기존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해상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은 물론,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에 대한 점유도 또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당한 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임기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한 이유는 중동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현재의 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동에서 자신들의 주둔 군대를 철수 시켰을까? 그 이유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중동의 불안사태가 지속되어야 중동을 경유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의 불안사태를 방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상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안전한 무역로 확보를 위해 공해상의 산호(珊瑚)섬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인공 섬을 만들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함 미사일 기지를 배치했다. 이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무역루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7함대를 향해 전면적인 적대 행동을 보인 것으로써 기존의 해상 패권질서 또한 바꿔보려는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되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벌인 무분별한 군사기술 해킹과 도용은 다양한 데드카피(Dead Copy)제품을 만들어 냈으며, 적성국과 무기체계를 달리한다는 기존 무기시장의 질서 또한 매우 어지럽혀 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율조작과 함께 위안화를 석유 거래 표준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위안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모든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그리고 중국에게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응징 앞서 언급된 4가지 규칙을 어긴 대가를 현재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2. 무슨 논의가 오고갔나?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사통신은 3114자 분량의 발표문을 냈다. 여기에서는 대만·민주·인권·올림픽은 포함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문제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회담 후 발표문을 냈고 이 내용은 타스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첫째는 군사 안보 관련 문제로 시진핑과 푸틴 회담의 주요 논의 사항 중의 하나는 러시아 안보 관련 문제였다. 이 사항은 중국의 발표문 가운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발표문에서는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지난 12월7일 화상회담 내용을 시진핑 주석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 주석에게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반복적으로 군사 인프라를 러시아 국경 가까이 이동시키면서 러시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바이든에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며 안보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이번 시진핑과 푸틴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안보동맹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오커스 등의 추가적인 군사동맹이 활발해진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이 국경 확정을 목적으로 옛 소련 공화국과 결성한 역내 다자안보기구)성립 20년 동안 중·러는 시종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업을 유지해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일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옛 소련 공화국 6개국(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이 2002년 창설한 집단안전보장 기구인 CSTO를 거론하면서 "융통성 있고 다양한 협력을 전개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관련인데 양국 정상은 지난주 미국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담'도 강하게 비난했다. 시 주석은 "어떤 세력이 '민주'와 '인권'을 간판삼아 중·러 두 나라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고,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 관계의 준칙을 난폭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관련 사항으로 양국 정상은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서방이 선언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스포츠의 정치화'로 못 박고, 두 나라가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다.

3. 달러 기축통화를 약화시키기 위해 무역네트워크 구축키로 합의?

두 정상 간에 오고갔을 법한 내용이고 예상되었던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대목은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첫 번째 규칙의 역린을 건드려 가며 미국의 패권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립적인 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의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 자체에 대해 중국의 위안화와 러시아의 루블화가 힘을 합쳐 영향력 축소를 시도하기로 결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위안화의 상용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으로 인해 러시아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편으로 러시아의 달러결제를 통한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차제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화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꿈꾸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은행 총재는 이미 2년 전에 "경제적, 정치적 성격 모두에 대한 러시아의 외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탈(脫)달러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또한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신포럼에서 펑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대일로 같은 중국의 국제적 프로젝트 확산으로 달러중심의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4. 뻔뻔한 푸틴의 두 가지 이중 플레이

첫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 안보의 또 다른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러시아 안보의 또 다른 보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 및 나토 동맹들과 협상하고 싶은 안보 조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안보와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또다시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통화했고, 통화 후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접경의 러시아 군비 증강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재강조하고 미국은 외교를 통해 안보와 전략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계속해서 유럽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러한 국면전환은 러시아가 결코 미국과 정면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볼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적당한 명분을 얻은 후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문제는 러시아의 이러한 국면전환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시진핑-푸틴의 화상 정상회담 직후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가 16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중·러가 국제규범을 어기고 국제질서에 도전한다는 거짓말을 날조해 서구를 중·러와의 위험한 충돌로 내몰고 있다."고 썼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봉쇄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며 "전력 면에서는 미국이 유리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쪽을 상대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러 가운데 한 쪽과 전략적 충돌을 하면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것은 워싱턴에게 악몽"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의 주장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공격을 하면 양국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글로벌타임스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결코 미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과는 국익 차원에서 손을 잡고 같은 편인 척 하지만 중국을 위해 러시아가 함께 총을 들 생각 역시 추호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헛다리짚고 있는 형국이다.

두 번째는 인도에 무기를 판 러시아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러시아가 인도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 쿼드(QUAD)에도

참여하고 있고, 합동 군사훈련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도의 가장 우선되는 적국이 바로 중국이라는 의미다. 그런 인도에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팔기로 했다는 사실은 중국에겐 엄청난 충격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3시간 30분간 마라톤 정상회담과 외교·국방 장관의 첫 2+2회담도 진행됐다. 이 만남에서 러시아-인도 양국은 군사기술협력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러시아는 인도에 54억 달러(약 6조4000억 원) 규모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계속 공급하기로 확정하는 등 양국의 방위협력을 확대·강화했다.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린다. 이 무기들은 고스란히 대 중국 방어에 투입된다.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를 중국이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러시아로부터 들여온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 철저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헛물켜는 중국, 중국은 어차피 혼자다

지난 7월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파키스탄에서 잠비아까지 : 누가 중국의 진짜 친구인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올렸다. 중국전문가인 마리아 시오우(Maria Siow)가 쓴 이 글은 중국 외교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보도라 할 수 있다.

SCMP는 "중국 외교성명의 영문판에 중국과 'ironclad'(쇠처럼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바위처럼 단단한)로 표현되는 국가가 14개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 14개 국가의 명단에 러시아와 북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그야말로 철통같이 단단한 나라로 꼽은 곳들은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말리, 몰타, 나미비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등 14개국이다. SCMP는 이들 14개국 외에도 벨라루스, 캄보디아, 쿠바, 미얀마, 우크라이나 같은 5개국도 'ironclad'에 준하는 나라로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렇게 따져도 중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19개 나라 명단에도 역시 러시아와 북한은 없다.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할 만하지만 어찌 보면 중국이 북한을 지금 계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또 러시아가 중국의 'ironclad'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을 연구하는 탁사실라연구소 마노지 퀴왈라마니(Kewalramani)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중국에게 전략적 파트너는 될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은 한때 중국에 속했던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역시 중·러 관계가 결코 하나로 묶여질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유명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본래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同床異夢)."며 "지금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으로 서로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대 미국 시위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양대 국가를 향해 윽박지르면서 탈중국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을 향해 이중 플레이를 하는 데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둘 다 모두 장기집권에 절대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

난득호도(難得糊塗)
멍청해 보이기는 어렵다.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주변 사람과 갈등이 있고 미움을 받으면 시기 질투가 따르고 방해를 받아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처세의 기본원칙이다.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호도(糊塗)라 한다. 중국 청나라 때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서예가, 문학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정섭(鄭燮, 호 板橋, 1693년~1765년)이 관직에
있는 동안 농민들을 힘껏 돕고 어려운 일을 처리해 주었으나, 그것이 도리어 권력가의 미움을
사서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때 그는 '난득호도(難得糊塗)'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難得糊塗'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훈이라고 한다.
'난득호도'에서 '糊塗'는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얼버무려 넘김으로써
속이거나 감춤을 이르는 말이고, '難得'은 구하거나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즉, **'난득호도'는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이처럼 '난득호도'는 자기를 낮추고 남에게 모자란 듯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현명한 처세가
된다는 중국인의 오래된 격언이 되었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체를 일삼다가는 다른 이의 미움을
사서 고난을 겪기 십상이었던 험한 시대를 거치면서 얻어낸 지혜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난득호도'를 처세의 경고로 여겨 정치적 권모술수와 외교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다.

고 김수환 추기경도 자신을 스스로 바보라 불렀으며 중국 북송 때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소동파도 "용맹한 사람은 겁쟁이처럼 보이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다.
동양에서는 겸양을 미덕이자 삶의 지혜로 삼아왔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더 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잡다한 지식만이 넘쳐나는 게 요즘 세상이다.
이럴 때 일수록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고 겸허히 자신을 낮추는 '難得糊塗'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때론
침묵의 지혜를 선호하는 예의바른 사람이다.

KUBS
Vision and Strategies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2030년까지 **Global Top30**, **Asia No.1** 수준의
Business School 달성

MISSION

01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VISION

World-class Knowledge Hub in Business 02

GOAL

03 Global Top 30 and Asia No.1 by 2030

Strategies

01 Sustainable Research Capacity

Integrated Global Experience 02

03 Demand-driven Innovative Education

명예교수

* 2022년 2월 28일 현재

구분	성 명	퇴임연월	전공/연구분야	학 부	최종학교(대학원)	초빙연도
1	송기철	1990. 8	마케팅	고려대 상학	서독 쾰른대학교	1956
2	유세환	1996. 2	회계학	고려대 상학	미국 워싱턴대학교	1958
3	이준범	1997. 8	인사관리	고려대 상학	고려대학교	1963
4	김완순	2000. 8	국제경영	서울대	미국 Harvard대학교	1973
5	지 청	2005. 8	재무관리	고려대 경영학	고려대학교	1969
6	조성하	2006. 8	회계학	고려대 경영학	미국 Houston대학교	1971
7	신수식	2007. 8	경영관리	고려대 상학	고려대학교	1968
8	어윤대	2010. 7	국제경영, 국제금융	고려대 경영학	미국 미시간대학교	1979
9	남상구	2011. 8	재무관리	서울대 공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1983
10	황규승	2012. 2	LSOM	서울대 기계공학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1981
11	신준용	2012. 2	회계학	서강대 수학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1984
12	윤영섭	2012. 8	재무관리	서울대 경제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1985
13	이필상	2013. 2	재무관리	서울대 금속공학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1982
14	강호진	2013. 8	국제경영	서울대 경제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1984
15	이장로	2015. 2	국제경영	서울대 경영학	미국 뉴욕대학교	1986
16	채서일	2017. 8	기업 및 마케팅전략	서울대 경영학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1984
17	이진규	2017. 8	인적자원관리, 경영관리	고려대 경영학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1989
18	유관희	2017 .8	관리회계, 재무회계	서울대 경영학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1996
19	장하성	2019. 2	기업지배구조, 시장미시구조	고려대 경영학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1990
20	박명섭	2019. 8	LSOM	고려대 무역학	미국 텍사스A&M대학교	1990
21	문형구	2019. 8	기업통제, 기업윤리	서울대 영어영문학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1993
22	이만우	2020. 2	세무회계, 회계감사	고려대 경영학	미국 조지아대학교	1988
23	서용무	2020. 8	Data Mining, Business Analytics	서울대 수학교육학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1996
24	김동철	2020. 8	투자, 기업평가, 위험관리	서울대 산업공학	미국 미시간대학교	2004
25	김익수	2021. 2	해외직접투자, 중국시장전략	고려대 경영학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1995
26	정호원	2022. 2	MIS – Big data analytics, Process assessment	고려대 산업공학	The Univ. of Arizona	1995

경영대 전임교수

*2022년 2월 28일 현재

연번	성 명	학부졸업	최종학교(대학원)	전공 및 연구분야	초빙연도
1	**고병완**	고려대 경영학	The Univ. of Texas at Dallas	MIS – 프로파일링/빅데이터 경제학, 디지털 비즈니스	2018
2	**권성우**	서울대 심리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영관리 – 조직행동, 협상	2004
3	**권수영**	St. John Fisher College	Washington University	회계학 – 감사품질, 감사보수, 내부회계관리제도	1993
4	**김광현**	서강대 경영학	Texas A&M University	경영관리 – 인사관리, 조직행동, 기업문화	2010
5	**김기훈**	KAIST 산업경영	Stanford University	LSOM – 경영과학,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009
6	**김대기**	고려대 건축공학	Massa. Institute of Tech.	LSOM – 공급사슬관리, 로지스틱스 시스템관리	2001
7	**김대수**	서울대 영어교육	Indiana Univ. – Bloomington	LSOM – 생산관리, 공급사슬관리	2006
8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Univ. of Wisconsin–Madison	경영관리 – 고용관계/노사관계	1997
9	**김배호**	포항공대 산업경영, 컴퓨터 공학	Stanford University	재무금융 – 파생상품, 위험관리, 파이낸셜 애널리틱스	2010
10	**김병조**	서강대 수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	LSOM – 기술경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도입	2012
11	**김상용**	서울대 서양사학	Duke University	마케팅 – 마케팅 모델링, 인터넷마케팅, 판매촉진	2001
12	**김언수**	고려대 경영학	University of Illinois	경영관리 – 경쟁전략, 전략실행과 과정 연구	1995
13	**김영규**	서울대 경영학	The Univ. of Chicago	경영관리 – 조직이론, 경영전략, 소셜 네트워크	2010
14	**김우찬**	서울대 국제경제	Harvard University	재무금융 – 기업지배구조, 국제재무	2012
15	**김재욱**	고려대 경영학	University of Illinois	마케팅 – 마케팅채널, B2B마케팅, 공급사슬관리	1995
16	**김재환**	고려대 경영학	Ohio State University	마케팅 – 마케팅 모델링/애널리틱스, DB마케팅	2004
17	**김정현**	카이스트 경영학	Univ. of Southern California	LSOM	2020
18	**김중혁**	고려대 무역학	University of Illinois	재무금융 – 투자, 증권분석, 행동적 재무, 기업재무	2004
19	**김진배**	서울대	Carnegie Mellon University	회계학 – 보상, 성과평가, 기업지배구조	2002
20	**김창기**	서울대 수학	University of Iowa	재무금융 – 보험, 위험관리, 금융관리	2011
21	**김태규**	서울대 경영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영관리 – 조직행동, 조직변화	2007
22	**김태진**	서울대 물리학	Northwestern University	재무금융 – 금융기관, 기업재무	2019
23	**김희천**	고려대 경영학	Texas A&M University	경영관리 – 경영전략, 전사적 전략, 신사업 전략	2003
24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재무금융 – 기업재무, 기업지배구조	2014
25	**남대일**	고려대 문과대	Washington State Univ.	경영관리 – 경영전략, 벤처 창업과 경영, 혁신	2011
26	**류강석**	서울대 경영학	Univ. of Pittsburgh	마케팅 – 소비자 행동, 구전 커뮤니케이션, 신제품 개발	2002

연번	성 명	학부졸업	최종학교(대학원)	전공 및 연구분야	초빙연도
27	**문정빈**	서울대 경제학	Univ. of Penn.–Wharton	국제경영 – 글로벌 전략, 비시장 전략	2009
28	**박경삼**	부산대 산업공학	KAIST	LSOM – 경영과학, 제품개발 및 디자인, 생산관리	2005
29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	Northwestern University	재무금융 – 재무관리, 기업지배구조, 투자론	1998
30	**박광태**	서울대 산업공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SOM – 서비스관리, 생산관리	1996
31	**박종원**	고려대 경영학	University of Illinois	마케팅 – 소비자정보처리, 판단 및 선택, 소비자행동	1992
32	**박진관**	고려대 경영학	Univ. of Penn.–Wharton	재무금융 – 기업재무, 투자관리	2012
33	**박찬수**	서울대 경영학	Stanford University	마케팅 – 마케팅에 대한 계량적접근, 브랜드자산 측정	1997
34	**배길수**	고려대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회계학 – 기업의 회계선택, 이익조정, 감사품질 및 보수	1998
35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	University of Illinois	경영관리 – 경영철학,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2003
36	**배진한**	서울대 경영학	캐나다 Univ. of British Columbia	회계학 – 기업가치평가, 사회적 성과평가	2008
37	**백지예**	이화여대	Boston University	MIS – Platform Economy, Business Analytics, Digital Lear	2020
38	**석관호**	고려대 경영학	캐나다 Univ. of Toronto	마케팅 – 소비자행동	2005
39	**손범진**	서울대 섬유공학	Univ. of North Carolina	재무금융 – 투자관리, 계량모델링	2013
40	**신덕정**	서울대	캐나다 Univ. of Western Ontario	국제경영 – 다국적기업 ESG 경영전략, 글로벌 리더십	2020
41	**신만수**	고려대 무역학	University of Illinois	국제경영 – 이문화관리, 국제인적자원관리	1991
42	**신호정**	고려대 무역학	Ohio State University	LSOM – 생산관리, 공급사슬관리	2006
43	**유승원**	서울대 경영학	Univ. of Wisconsin–Madison	회계학 – 공시, 회계감사, 성과평가	2005
44	**유시진**	서울대 경영학	Univ. of California, LA	마케팅 – 마케팅성과측정, 고객자산, 시계열분석	2007
45	**유용근**	서울대 경제학	Columbia University	회계학 – 기업가치평가	2005
46	**유원상**	고려대 경제학	캐나다 Univ. of British Columbia	마케팅 – 경쟁전략, 마케팅모델링, 게임이론	2010
47	**유지송**	고려대	Univ. of North Carolina	회계학	2020
48	**윤성수**	서울대 경영학	University of Illinois	회계학 – 세무회계, 세무 소송, 국제과세	2003
49	**윤성아**	UCBerkeley 경제학	Stanford University	마케팅 – 소비자 행동, 행동선택 이론	2007
50	**이건웅**	고려대 컴퓨터	Arizona State University	MIS – Data Analytics, Economics of IT, Digital Inno.	2020
51	**이동섭**	서울대 경영학	Univ. of Wisconsin–Madison	경영관리 – 조직행동, 동기부여, 리더십	2009
52	**이동욱**	서울대 경영학	Ohio State University	재무금융 – 국제재무, 기업재무, 채권	2006
53	**이동원**	서울대 경영학	Minnesota(Twin–Cities) Univ.	MIS – 이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2006
54	**이두희**	고려대 경영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마케팅 – 광고이론, 국제마케팅이론, 사례개발	1990
55	**이장혁**	서울대 국제경제	프랑스 ESSEC	마케팅 – 인터넷마케팅, 서비스마케팅	2006
56	**이재남**	성균관 금속공학	KAIST	MIS – IT아웃소싱, 지식경영, 온라인 비즈니스	2006

연번	성 명	학부졸업	최종학교(대학원)	전공 및 연구분야	초빙연도
57	**이재혁**	고려대 무역학	Ohio State University	국제경영 – 글로벌경영, 경영전략, 지속가능성 (CSR&SDG)	2002
58	**이종호**	고려대 경영학	University of Cambridge	마케팅 – 마케팅 전략/혁신, 하이테크, 디지털 마케팅	2006
59	**이준만**	서울대 경영학	Univ. of Penn.–Wharton	경영관리	2018
60	**이한상**	서울대 경영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회계학 – 조세 및 금융 관련 국제회계 기준과 감사	2011
61	**이현석**	고려대 경영학	Univ. of North Carolina	LSOM – 생산관리, 서비스운영관리, 경영통계	2020
62	**이희범**	서울대	New York University	재무금융	2020
63	**임호순**	서울대 경영학	Univ. of California, LA	LSOM – 서비스운영관리, 경쟁문제, 데이터환경 분석	2002
64	**장진욱**	서울대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영관리 – 조직행동, 협상	2020
65	**전재욱**	고려대 경영학	State Univ. of New York	경영관리 – 리더십, 조직행동, 연구방법론	2009
66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	State Univ. of New York	회계학 – 재무제표분석 및 기업가치, 감사	1997
67	**정인식**	경북대 국제무역	Univ. of South Carolina	국제경영 – 국제마케팅, 글로벌시장조사	2005
68	**정재호**	서울대 경제학	Harvard University	국제경영 – 해외시장진출전략, 해외직접투자	2007
69	**정지웅**	연세대 경제/ 응용통계학	Ohio State University	재무금융 – 자산운용(사모/헤지/뮤추얼펀드), 기업재무	2012
70	**정창화**	Syracuse Univ. Finance	캐나다 Univ. of Western Ontario	국제경영 – 국제전략, 기업전략, 전략적 제휴	2010
71	**조경아**	Harvard대 러시아/ 소비에트 연구	Columbia University	국제경영 – 국제마케팅, 신흥시장 소비자 행동론	2016
72	**조명현**	서울대 경영학	Cornell University	국제경영 – 기업전략, 글로벌 전략, M&A전략	1997
73	**지승민**	연세대 경영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회계학 – 재무회계, 이익의 질	2013
74	**최우석**	고려대 경영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회계학 – 재무회계,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2006
75	**최진희**	서울대 심리학	University of Chicago	마케팅 – 소비자행동, 소비자심리, 의사결정	2009
76	**편주현**	고려대 경제학	Univ. of California, Davis	국제경영 – 국제금융/무역, 서비스(문화,금융) 국제화	2013
77	**한규홍**	서강대 경영학	Rice University, Houston, TX	마케팅 – 마케팅 전략, 광고비, 고객만족, B2B	2021
78	**한승수**	서울대 경영학	Illinois State University	회계학 – 재무보고 및 공시, 국제회계, 성과평가	2009
79	**한재민**	고려대 무역학	The University of Iowa	MIS – IT전략, 신기술사업, e-비즈니스	1991
80	**홍세준**	서울대 국제경제	Carnegie Mellon University	MIS – IT사용자 상호작용, IT혁신관리 및 전략	2006
81	**황선우**	아주대 산업공학	Univ. of North Carolina	재무금융	2021
82	**황준호**	KAIST 산업경영	Indiana University	재무금융 – 기업재무	2007
83	Tony c. Garrett	Univ. of Otago 마케팅	뉴질랜드 Univ. of Otago	마케팅 – 혁신과 신제품개발, 마케팅과 문화	2007
84	Martin Hemmert	쾰른대 경영학	독일 Universität zu Köln	국제경영 – 기술제휴, 비교경영시스템	2004

고려대 경영대학,
한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 평가
14년 연속 1위

**2021 전국 경영대 평가
역대 상위 10개 대학 종합 순위**

종합 순위	대학	2020 순위	변동
1	고려대	1	
2	연세대	3	▲1
3	서울대	2	▼1
4	성균관대	4	
5	서강대	6	▲1
6	한양대	5	▼1
7	경희대	7	
8	중앙대	8	
9	한국외대	9	
10	이화여대	1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배종석)이 한경비즈니스에서 실시하는 '2021 전국 경영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고려대 경영대학은 해당 평가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년 연속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으며 국내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됐다.

경영대학은 전체 9개 평가항목 중 △업무 적응력 및 실무 능력 △조직 융화력 △성실감과 책임감 △신입 사원 채용 선호도 총 4개 부문에서 선두에 올라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신입 사원 채용 선호도에서 서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자타 공인 최고의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경비즈니스는 "고려대의 거침없는 질주는 독보적인 교육과 연구 역량이 비결"이라 전하며 "최고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경영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점"을 강점으로 설명했다.

경영대학은 최근 기업들의 수요 인재상에 발맞추어 '창의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들을 육성 중이다. 배종석 경영대학장은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영대학은 단순히 경영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며, "실제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제에 부딪

쳤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명확하게 '소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고 융합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경영대가 추구하는 교육 혁신과 인재상을 밝혔다.

더불어 배 학장은 "경영의 목적은 '인류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며,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 경영대학은 더 좋은 인재들이 '사회적 리더'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경영대학이 어떠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지도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배 학장은 "경영대 차원에서 '▲5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3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실행 중"이라고 전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심 학습(PBL : Problem Based Learning)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수법을 시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영대학은 2005년 학부와 일반대학원 · 경영대학원 등 전 학위 과정에서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 2007년 유럽경영교육(EQUIS) 인증을 한국 최초로 받았다. 2015년에는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셈즈 글로벌 얼라이언스(CEMS Global Alliance)의 정회원 자격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6년 연속 CPA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등 다방면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초, 국내 최고 경영대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영대학은 2021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세부트랙 인증 제도를 통하여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인 융합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한 경영대학은 스타트업연구원을 통하여 경영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타 전공 및 타 대학 학생들의 창업 지원까지 시행하며 경영대 차원을 넘어 고려대와 사회 전체의 창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 평가는 인재의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대학을 평가한다. 국내 3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평가 부문 별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설문 항목은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업무 적합성 △업무 적응력 △조직 융화력 △발전 가능성 △창의적 업무 해결 △국제화 시스템 △성실성과 책임감 △신입 사원 채용 선호도 △진학 추천 등 총 9개로 구성됐다. 9개 평가 부문에 모두 동등한 비중을 두기 위해 각 부문 순위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냈다.

경영신문 695호 발췌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 최다 배출

고려대가 제56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고려대는 6월 26일(토)~27일(일)에 실시된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152명이 최종 합격하며 2016년부터 6년 연속 가장 많은 CPA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다.
제56회 공인회계사 대학별 합격자 수는 고려대 152명에 이어 연세대 118명, 중앙대 104명, 성균관대 102명, 경희대 91명 순이다.(출처 : 한국대학신문 9월 10일 자 보도자료)

고려대는 5년간 총 59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연평균 120여명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어 최종 시험에서도 2위권과 30명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2020년보다 25명이 증가한 총 152명의 합격자를 배출함에 따라 CPA 최강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고려대가 CPA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로 경영대학 CPA 준비반인 정진초(精進礎, 지도교수=배진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정진초는 1년에 세 번 입실 시험을 진행해 성적순으로 69명을 선발하는데, 학과에 상관없이 고려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정진초는 학생들이 CPA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월별 모의고사,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합격자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경영신문 695호 발췌

2년 연속 QS 아시아대학평가
국내 1위 쾌거

꾸준히 높은 졸업생 평판도 및
학계 평판도 지표, 성과 견인차 역할

교원 당 학생 수 지난 해 대비
8계단 상승, 더욱 업그레이드된 교육 환경

고려대가 2년 연속 국내대학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1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고려대가 국내 대학 1위(전체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2009년 QS 아시아대학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고려대는 지난 해 처음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1위를 거듭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대학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QS 아시아대학 순위는 아시아대학만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2018년부터 국제연구협력 지표가 추가되면서 총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지표별 반영비율은 학계 평판도 30%, 졸업생 평판도 20%, 교원 당 학생 수 10%, 국제 연구협력 10%, 논문 당 피인용 수 10%, 교원 당 논문 수 5%, 박사학위 소지 교원비율 5%, 외국인교수 비율 2.5%, 외국인학생 비율 2.5%,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 2.5%,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 2.5%로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대다수의 한국 대학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고려대는 졸업생 평판도 및 학계 평판도 등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또한 교원 당 학생 수 지표에서는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하며 한층 발전된 교육환경을 입증했다.

우수 지표(1) : 졸업생 평판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한 창의적 인재,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고려대는 전통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판도를 유지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를 지향하며 단편적 지식을 지닌 인재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전공 교육 외에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방된 사고와 열린 마음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봉사, 해외 경험, 창업 등을 경험하며 조직 내 소속감, 책임감, 리더십 등을 배워 나가고 있다.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교과-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Kuchive(이하 쿠카이브)'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영역에서의 활동을 관리해주며 기본적인 교과(전공+교양)/비교과 활동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새로 개발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봉사단을 사회공헌원으로 승격하여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 뿐 아니라 사회혁신융합교육을 개발·운영하고 관련분야 비교과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게 된다. 더불어 동반성장의 체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등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며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 과정에서 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경험과 역량이 구직 경쟁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희망하는 산업과 직무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희망하는 업무의 본질과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직무아카데미도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구직자별로 겪는 커리어 개발의 호소문제에 대한 맞춤형 카운슬링

으로 1:1 커리어 전문상담도 운영 중이다. 그밖에도 실전 면접을 가정한 인사담당자의 면접 지도 및 피드백 등이 담긴 모의면접 클리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첨삭 클리닉 등 약 30여 개의 정례/상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같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졸업생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졸업생들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높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수 지표(2) : 학계평판도 및 국제연구협력

"연구자 중심의 실용적 연구, 인류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중점"

고려대의 연구 역량이 지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연구자 중심의 지원 사업이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지식 창출과 더불어 사회 공헌에 중점을 둔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장려를 위한 원문교정지원사업과 학제간 연구지원사업을 통한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실적의 양적인 부분 외에 질적인 면도 높이 평가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미래창의지원사업(KU-FRG)을 마련, 창의·도전적 연구, 대형연구과제, 융합연구, 기초학문 및 희소학문, 국제연구협력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성연구진흥 기금을 통해 우수 신진 교원 또는 세계적 수준의 교내 연구자에게 고액의 연구비를 지급,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를 전략적,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RC(Research Coordinator)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고려대는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AI대학원 운영과 UN이 정한 인류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에 가치를 두며 고려대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수 지표(3) : 교원 당 학생 수

고려대는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원 확충에도 힘써왔다. 최근 고려대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교원 당 학생 수 지표에서 8계단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장길수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가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2030 비전하에 연구와 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앞으로도 대학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고려대학교가 고등교육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ac.kr

2021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1.1.1~2021.12.31 기준)

〈500만원〉

57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1학번 최오길 자문위원
65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72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학번 김 윤 부회장
72학번 허진수 부회장
74학번 승명호 부회장
74학번 정몽원 명예회장
75학번 안영일 부회장
75학번 허경수 부회장
76학번 이 범 부회장
77학번 이만득 부회장
89학번 정의선 부회장

〈300만원〉

84학번 이용훈 부회장

〈100만원〉

63학번 어윤대 고문
64학번 강동식 부회장
66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66학번 최용순 자문위원
66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70학번 김광식 부회장
70학번 이창희 부회장
70학번 한대곤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72학번 황구연 부회장
73학번 김창수 부회장
73학번 정기련 부회장
74학번 강호갑 부회장
76학번 강형모 부회장
77학번 이재홍 부회장
77학번 이철우 부회장
78학번 이영호 부회장
79학번 김 정 부회장
79학번 이동열 부회장
80학번 변대현 부회장
80학번 정학헌 부회장
82학번 배종석 부회장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82학번 최준영 부회장
85학번 황영달 감사
87학번 홍종성 부회장
88학번 전찬혁 부회장
89학번 이동섭 부회장
90학번 송승민 부회장
90학번 한상일 감사
90학번 형윤준 부회장
92학번 강정훈 부회장
(익명)
97학번 심 건 부회장

〈50만원〉

53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55학번 유상옥 자문위원
55학번 이석호 자문위원
59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학번 김병건 자문위원
62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5학번 장옥수 상임이사
66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72학번 홍형기 상임이사
75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학번 김동원 고문
78학번 손무성 상임이사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학번 임영진 상임이사
79학번 정몽진 상임이사
80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81학번 김언수 상임이사
81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학번 김현수 상임이사
81학번 송재현 상임이사
81학번 홍흥석 상임이사
84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5학번 김정호 상임이사
86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67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70학번 정균화 상임이사
74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78학번 박병규 상임이사
79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20만원〉

63학번 이연송 자문위원
63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5학번 김호일 상임이사
67학번 박우양 자문위원
69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69학번 이재선 상임이사
71학번 이세형 상임이사
71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학번 김문기 상임이사
72학번 김윤수 상임이사
72학번 최철기 상임이사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92학번 조명훈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학번 유휘성

이 사

53학번 이호용
54학번 김진배
55학번 김기인 박은양
58학번 함명돈
59학번 강창석 권상진
60학번 김선진 이웅휘
61학번 김길남 박순자 성영일 채규학
62학번 송준일 오무환
63학번 김종원 김형덕 이승칠 이영무
64학번 김용운 김헌희 안상철 정제성 홍인표
65학번 이창윤 최병일
66학번 김홍재 신진철 신현옥 임혁기
67학번 김용동
68학번 서정규 오정옥
69학번 김영찬 맹인재 신현웅 이정주 임채홍
70학번 차준태
71학번 권관순 최광균 최윤도
72학번 남덕우 문덕인 박만우 이원창 한충열
73학번 김순배 김용태 정봉채 현기춘
74학번 김승길 박창근 윤명상 홍영호
75학번 강태성 김석태 김우진 김창경 배영환
76학번 김덕만 박호인 배유현 서윤덕 손봉원 이법호 이원직 장진원
77학번 이완재 이용모 홍 운
78학번 경석현 김상구 류한호 박재호

	박주병	신학기	정동창	조경영
	조정환	홍 승		
79학번	김상해	김용상	김원환	김진호
	민경섭	박진호	서동린	안성경
	정춘돌			
80학번	김경남	배기범	서 정	정덕인
	정백조			
81학번	김재범	박성철	박점열	박지수
	유한수	이상혁	이훈복	
82학번	장태수	정교순	정지호	
83학번	송경석			
84학번	김준호	위승훈	윤귀만	최병권
85학번	김은섭	임경훈	임 욱	정병욱
86학번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황택현
88학번	박동진			
89학번	김평국			
93학번	염규상			
96학번	주민근			
04학번	주성휘			

일반교우 〈3만원〉

48학번	황헌수			
51학번	전윤자			
52학번	김영섭			
53학번	엄기정	정 환		
54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태규
	조해연	태호팔		
55학번	권중탁	김관수	김광희	김영식
	김정래	김정식	김종은	남치현
	박상호	신문철	신범현	안성인
	윤희표	이득주	이순용	이승재
	이형구	정삼택 (8만원)	정영호	하영선
	황중환			
56학번	권용진	김지영	백공용	신명철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전상훈
	조해균	최종해		
57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성균	김영철
	김재곤	서우식	이병길	정기원
	정우종	홍성규		
58학번	남태현	박성업	사윤진	선환규
	오덕환	윤영연	이종득	이종철
	천정호	홍종익		
59학번	강해홍	권병용	김종길	김주환
	노규채	박형문	변흥주	송운한
	송창순	양재관	오의희	윤석문
	이광조	이기홍	이영희	이윤제 (9만원)
	이응두	이의방	이창용	한순영
60학번	곽병화	구자욱	김광평	김만용
	김삼경	김상호	김승남	노경식
	노수범	박상화	박정자	성윤경
	송 정	신준호	이일구	정현구
	조수만	조시연	최덕형	최익호
	하정일	한국언	한기정	
61학번	김도민	김병만	김봉암	김소헌
	김순구 (6만원)	김윤장	김홍곤	박무용
	박식의	박염업	박진자	박청자
	박화신	부수남	송일웅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경순	이근창
	이봉헌	이 완	이원태	이재영
	이채영	이학주	전규수	조 경
	채창현 (6만원)	최동권	최 홍 (6만원)	
62학번	구자웅	김광태	김재우	김종순 (10만원)
	김종진	김효명	류종암	백효휘
	석영부	송기현	안기정	유병하
	윤재환	이순영	이인영	이호웅
	한상욱			
63학번	김소부	김시균	김일웅	김지창
	남 훈	박종일	백선기	오순일
	윤익순	이천우	임휘련	전남복
	정완영	최경호	한상용	한흥섭
	황공석			
64학번	고병선	김덕환	김상규	김선욱
	김은태	김철주	김춘식	김후종
	민선용	박채길	손인교 (2만원)	송병열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재현
	이경희	이태경	이항선	이형탁
	정철현	조증래	최종한	허석도
	현봉길	홍현묵	황석희	
65학번	강병호	박완근	박태인	신성용
	이경찬	이정수	조희원	허창무
66학번	김명진	김상진	김웅한	김종열
	김진하	박민규	박용혁	성순환
	염수열	오창석	우강용	이연상
	이중구	이판철	장철기	정동준
	정순달			
67학번	윤정섭	이계남	이재헌	조용건
	최종철	한기석	한상규	한창기
68학번	서세철			
69학번	김영호	정영목	정택모	조대승
70학번	강명구	구본능	박병천	송재윤
	제 철			
71학번	김기동	김재원	박용우	박장훈
	최윤호	허진영		
72학번	고재영	김성욱	김영만	김영식
	김윤수 (20만원)	김종헌	류병기 (6만원)	박흥국
	양삼규	엄의식	장석산	전종환
	정우성	조승식	황순기	
73학번	김교웅	손대정	이승대	이인철
74학번	김성화	김주화	박남식	박영식
75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 훈	박문재
	이재원	홍대희		
76학번	권순도	김광환	김성수	백현재
	이봉용	이승철 (10만원)	정민진	
77학번	김대철	이찬근	임동하	홍태기
78학번	강석현	구본용	권오상	김병수
	김석민	김승중	김일용	박수영
	변희원	상희찬	안승배	오대용
	유승식	윤장섭	정세종	조항웅
	황순하			
79학번	권홍국	김성태	김영관	류병완
	신현길	양원묵	유순근	정운창
	지수용	채승우	황보평	
80학번	김병조	김신회	김태헌	박선규
	유지열	이세호	조성호	조현찬
	최유성			
81학번	김신철	김용운	김한근	오주환
	이심훈			
82학번	김지환	박종원	박준재	심재홍
	오창희	이경호	이성우	
83학번	곽병현	김민호	김윤호	김정욱
	이재용 (5만원)	허유성		
84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민권	김병남
	김용주	김용환	김홍석	박광구
	박병성	이창구	홍제연	
85학번	강황배	김상태	박승하	신강영
	신호섭	심성도		
86학번	김석영 (6만원)	김좌영	류재열	서동욱
	표민수	황인하		
87학번	김사원	유현규	이덕희	이상식
	이종제			
88학번	구자은	김삼덕	유제만	하종문
89학번	고경의	박병영	서계원	성기승
	이윤석	정운근		
90학번	김형기	염창열	이은기	장원석
91학번	이상수	임수현	조성일	
92학번	김재형	김창영	문명호	정선흥
93학번	오명일 (5만원)	윤성재	이해성	임영수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황경하			
94학번	권혁상	김도윤	서경덕	서동희
	임태봉			
95학번	이규열	이희윤	지재홍	
96학번	김민엽	백웅조	이명준	이준희
97학번	강민수			
98학번	이재등	이진상		
99학번	신보연			
00학번	박 진			
03학번	오병원	추창화		
04학번	김형태			
05학번	강종범	김정권	박종환	이근호
	이현호			
07학번	심윤보			
08학번	신재호			
09학번	송명근	전태희		
10학번	김도형	김민정		
11학번	송웅기	한은경		
12학번	황지민			

학번별 분담금

62학번	500,000
66학번	500,000
67학번	500,000
69학번	500,000
70학번	1,000,000
71학번	1,000,000
72학번	1,000,000
73학번	1,000,000
74학번	1,000,000
75학번	1,000,000
76학번	1,000,000
77학번	1,000,000
78학번	1,000,000
80학번	1,000,000
81학번	1,000,000
82학번	1,000,000
84학번	1,000,000
86학번	1,000,000

평생회비〈30만원〉

78학번 홍준표

학번확인불가(동명인)

김민아 30,000

2022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현황

(2022.1.1~2022.3.24 기준)

〈100만원〉

65학번	김신경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50만원〉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10만원〉

이 사

63학번	이영무	
78학번	신학기	

일반교우 〈3만원〉

52학번	김영섭	
55학번	남치현	이형구
59학번	김무남	
61학번	김활자	
62학번	오무환	
63학번	정완영	
64학번	박덕배	홍현묵
65학번	이경찬	
74학번	구본량	
78학번	김일용	박수영
93학번	김도희	
96학번	백웅조	
00학번	박 진	
04학번	송 진	
06학번	정재욱	

학번별 분담금

70학번	1,000,000
74학번	750,000 (경영)
77학번	1,000,000
83학번	1,000,000

감/사/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Global 30위 경영대학과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일반연회비

달성 **96.3%**

목표 14,000,000원
실적 13,48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71.4%**

목표 21,000,000원
실적 15,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74.0%**

목표 192,000,000원
실적 142,160,000원

TOTAL

2021년 12월 31일 기준

목표 227,000,000원
실적 170,640,000원

달성 **75.2%**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주)E1 대표이사 회장 구자용 (무역73)

신한 pLay

신한Pay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할 신한카드의 새로운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11123-Exn-001호 (2021.11.23~2022.11.22)

1Lead by 신한카드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임영진 (경영79)

에너지플러스앱을
다운로드하세요

GS칼텍스 × Hyundai Card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에너지플러스카드 Edition2

e+ energy plus

- 연회비 : 국내전용/국내외겸용(Visa) 1만원
-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일시불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 3%
- 무이자할부 :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 3%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연체금 보유, 신용평점 낮음 등)한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202-C2b-00905호 (2022.01.28~2023.01.27)

GS칼텍스(주) 이사회 의장 허진수 (경영72)

MIGHT & MAIN㈜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